



JCI 인증의료기관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2015 1112

Vol. 114

Smart Choice Best Care

인하대병원

Hello 닥터_ 장기이식센터장 안승익 교수 Medical point_ 장기이식센터 Today INHA_ 전립선암 다학제 진료 병원 탐방_ 인천광역시의료원 백령병원





인하대병원

Nov
+
Dec 2015 Vol.114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인하대병원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의 손

쓸쓸히 걷는 인생길에
조용히 다가와 잡아주는 손
얼마나 따뜻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손이 닿기만 해도
마술에 걸린 듯 전율이 흘러
더 잡고 싶은 손!

당신의 손이 있기에
영원히 놓고 싶지 않은,

“아름다운 당신의 손”입니다!

저와 손잡으실래요...



홍윤숙 | '그대찬손 내가 잡아주면' 중에서

건강 한 걸음

- 04 **Hello 닥터** 장기이식센터장 · 간담체외과, 이식외과 안승익 교수
- 07 **Medical point** 아낌없이 주고, 나누다
- 08 신장이식팀 / 간장이식팀
- 10 조혈모세포이식팀 / 안구(각막)이식팀
- 12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
- 14 **Today INHA** 전립선암의 다학제 진료
- 16 **Health touch** 섬세하고 민감한 항문 질환, '치질'

사랑 두 걸음

- 18 **어디까지 가봤니** 인천 골목이 품은 이야기 6 - 용현동
- 22 **Special people** 반도네온 연주자&작곡가 고상지
- 24 **모르면 지는거다** 한 방울로~~ 향기로운 사람이 되는 법!!

나눔 세 걸음

- 26 **Change the INHA** 환자안전 시리즈 ⑧ - JCI 모의평가
- 28 **INHA Focus** 각막이식 지원 캠페인
- 30 2015 공공의료사업
- 32 **인하심표** 그 황홀한 가을날에...
- 33 **특특 약물상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Fentanyl) 사용법 및 주의사항
- 34 **병원 탐방** 인천광역시의료원 백령병원 이두익 병원장

INHA NEWS

- 36 **병원소식** 인하대병원소식
- 38 언론에 비친 인하대병원
- 39 **Info desk** 건강교실, 공개강좌, 전시회 및 공연, 파랑새 소식



표지_인하대병원 장기이식센터 - 내일이 기대되는 의료진

안승익

기증자가 나는
마지막 생명의 불씨

소중하게
이어주겠습니다!

Profile 안승익 교수는 1987년 서울대학교 의학석사 1993년 서울대학교 의학박사를 수료하였으며, 1995년 일본동경대 의과대학 제2외과학교실 연수(간 절제), 2009년 피츠버그의대 이식외과 방문교수를 거쳐 현재 인하대병원 진료부원장 및 인하대병원 공학의료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다. '간암 환자에서 수술 후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관한 연구' 등 다수의 논문과 활발한 대내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더 이상은 물러설 곳 없는 생명의 끝을 마주할 때, 장기이식은 마지막 선택이 된다. 진료과 여럿이 협연해야 하는 것이 장기이식 수술이다. 모든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통합적 시스템을 구축한 인하대병원 장기이식센터장 안승익 교수를 만나보았다. 생명을 나누고 이어주며 희망을 주는 센터의 아름다운 동행이 빛나길, 주고받는 자의 결과가 헛되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에디터_ 이정희 사진_ 송인혁 실장 / 다뷰스튜디오

건강회복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장기기증은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는 나눔이고 장기이식수술은 생명 연장의 마지막 대안이다. 인간의 장기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장기를 받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말한다. 외과의로서는 아주 힘든 과정이지만 자부심을 갖고 좋은 결과를 위해 노력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치료이다.

이식밖에 길이 없다며...

간이식은 수술 시기를 놓치면 다른 방법이 없다. 신장은 바로 이식이 불가능할 경우 인공투석이 가능하다. 장기이식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환자에게 이식수술이 필요한 것이다. 이식수술이 성공적이라 해도 면역억제제 등의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 그러나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황에서 매일 몇 알 정도의 약으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면 그것을 불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다. 특히 간 기능 부전이 되면 이식밖에 길이 없다.

인하대병원 장기이식센터 개소하다

외과와 내과의 의학기술이 집약되는 것이 이식수술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과의 협진이 필요하다. 생체 이식의 경우는 공여자와 받는 자를 동시에 집도해야 하기 때문에 수술실, 의료 인력 등 모든 것이 2배가 필요하다.

인하대병원은 인천 지역을 대표하는 상급병원으로서 이미 충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을 고려해본다면 다소 늦은 감이 있기는 하다. 효율적인 시스템 가동으로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지역사회 대표의료기관의 소임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다.

효과적이고 원활한 장기이식 위한 중간역할

인하대병원은 성공적인 이식수술을 해왔고, 우리 젊은 친구들 중심으로 구성된 이식수술 팀은 떠오르는 드림팀이다. 내일도 간이

식 수술이 있는데 나 역시 집도가 아닌 조수로 들어간다. 그런 실력과 의료진 구성에 맞게 조직을 재정비하여 수술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활성화될 것이다.

뇌사라는 곤란한 상황이 원내에서 발생하였을 때 장기기증 본부와 함께 전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장기이식 전문 코디네이터가 병원 내 상주하게 된다.

효과적이고 원활한 장기이식을 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하며 수술 후에도 관리해주는 전문 간호사가 있어 원활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뇌사자에 대한 개념 바뀌어야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은 고인을 두 번 죽이는 것처럼 생각하는 유교사상이 있어서 장기기증 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아 굉장히 낮은 편이다.

또 뇌사자 판정이라 하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자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곧 사망이 임박했음을 말하는 것인데 이때 장기기증을 권하는 일 역시 쉽지 않다. 또 기증을 한다 해도 간혹 주위의 시선 때문에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보호자도 있다.

심폐기능이 정지되어야만 사망이라고 인정하면 신장 이식은 가능하지만 간이식은 할 수 없다. '뇌사가 사망'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까지의 과정 역시 아주 힘든 일이다.

뇌사자는 인공호흡으로 산소 공급을 해주면 장기 기능은 유지가 되는 상태를 말한다.

기본은 혈액형이 맞아야 한다

아들의 간을 받으면서도 혹시나 하며 자식 걱정을 하는 아버지도 그를 지켜보는 가족도 건강한 사람의 몸에 칼을 대야 하는 의사도 그렇고 각자 피할 수 없는 갈등이 있다.

연구이식은 뇌사자에게 받을 수 있고 살아있을 때 주지 못한다. 간은 왜소한 부인이 덩치가 큰 남편에게 줄 수 없다. 여자가 남자

에게 주기는 힘들다. 우선 기본은 혈액형이 맞아야 한다. 물론 맞지 않아도 가능한 하지만 성과가 떨어지는 편이다.

아들의 간을 이식받고 다시 술, 그리고... 허망하다

특히 알코올성 간 경변에 의한 간부전증 환자에게 이식을 해야 하는 경우 복잡한 딜레마에 빠진다. 가족들이 처음엔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 이식수술 후 술을 먹지 않겠다는 서약과 함께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겠다는 다짐을 한다.

뇌사자에게 주로 이식받는 유럽의 경우는 술 끊은 지 6개월 이상인 사람에게만 이식하는데 간담체 의사 입장에서는 우선 환자의 생명을 먼저 살려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정신과 치료로 알코올중독을 고쳐야 하지 않나 하는 딜레마에 빠진다.

손주의 간 기증 반대를 간신히 설득하여 이식수술을 한 기억이 있다. 고등학생 아들의 간을 이식받은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간경화가 심해진 경우였다. 이렇게 이식을 받고 또 술을 마시면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지자 다시 술을 입에 대었고 결국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처럼 허망 된 경우가 있는가? 술이 참 독(?)하다는 걸 새삼 느꼈고, 이후 나도 술을 줄이게 되었다.

효율적으로 준비할 일 많은 우리 센터

새로 시작하는 일이 아니고 한곳에 모여서 보다 효율적으로 하자는 일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조금씩 깊게 넓히면 된다는 생각이다. 뇌사자의 개념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캠페인은 국가적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병원에서 뇌사자 기증이 있다고 해서 자체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네트워크에 공유



시스템을 재정비한 장기이식센터를 개소하고 새로운 생명을 열어주는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다.

해서 가장 시급한 사람이 받게 되니 말이다. 지금까지는 우리 병원에서는 공여를 받아 이식수술 한 경우만 있다.

제2의 생명 살리는 노력, 병원 전체의 협조 필요

그렇다. 이식수술 특성상 수술실 배정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수술실이 2개 필요하고 미리 예견되는 상황이기 보다 긴박하게 진행되니까 병원전체의 협조가 필요하다. 또 병원에서 외부 기부금 등을 활용해서 환자의 치료비 경감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해 주는 점은 우리 센터 입장에서 고마운 부분이다.

편한 것이 행복? '가치'있는 일의 의미!

요즘 외과 상황은 힘들다. 그러나 사람이 힘들고 위험하더라도 생명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 세상을 편하게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한다. 이런 생각은 내가 외과 의사 길을 걷게 된 동기가기도 하다.

수술이 항상 성공적이고 멋있지는 않다. 실망하는 보호자와 환자를 보면 의사 역시 마음이 아프고 힘들다. 그렇다하더라도 '가치 있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은 마냥 헛된 것만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

인하대병원 장기이식센터는 다소 미비한 시스템을 재정비를 한 셈이다. 센터 내에 여러 과가 소속되어 교수급 의료진만 20여 명이 다. 가치 있는 일을 위해 도전하는 그들에게 희망의 빛이 느껴진다.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전 직원은 '하나의 힘'을 발휘하며 '실력과 신뢰'가 공존하는 인하대병원 장기이식센터로 새로운 생명을 열어주길 당부해본다.

식물인간 개념과 다른 뇌사자의 간 이식

장기기증이 활성화되어 있는 서양에서는 뇌사자 기증과 비교해 보면 문화와 철학이 달라서 인지 아시아에서는 그 비율이 굉장히 낮다. 뇌사자 간 이식에 이용하는 간은 이미 뇌가 죽어서 신체적으로 사망한 사람이 심장만 뛰고 있는 상태에서 기증하는 것을 말한다. 기증자는 기증하는 도중에 심장이 멎고 사망하게 된다. 간혹 식물인간과 뇌사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 기증을 바라는 보호자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식물인간과 뇌사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식물인간은 대뇌의 기능이 상실되어 의식, 운동기능은 없으나 호흡과 같은 다른 기능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환자가 움직일 수도 있다. 하지만, 뇌사는 뇌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한 상태로 자가 호흡 없이 인공호흡기로 심장만 유지되는 상태로 인공호흡기를 떼면 바로 심장이 멎고 사망하게 되는 상황에서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다. 뇌사가 간 이식은 손상만 없다면 간 전체를 사용할 수 있어 환자의 간 기능이 빨리 좋아지고 여러 측면에서 수술도 편하다.

인하대병원 장기이식센터

**빛나는 나눔 사랑,
거기 그렇게 빛나고 있을
생명 사랑을 잇다**



세상에서 가장 짧은 삶,
한 시간 남짓 살면서 장기를 나누고 엄마 품을 떠난
아기의 이야기는 우리의 가슴을 작게 만든다. 또 태어난 지
겨우 10개월밖에 안 된 아기가 힘든 간 이식수술을 견뎌내며
죽음 직전 부모 품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은 희망으로 가득
메운다.

어떤 이의 평생보다 훨씬 값진 일을 한 아기의 작지만 빛나는
나눔 사랑과 나는 없더라도 거기 그렇게 누군가의 생명으로
빛나고 있을 생명 사랑...
다른 삶의 끝에서 두 사랑을 값진 생명으로 이으며 희망을
버리지 않는 인하대병원 장기이식센터가 있다. 욕심보다
작은 실천으로 내실을 쌓아가는 그들을 소개한다.

사진_ 김승봉, 손보광 / 홍보팀

- 신장이식팀
- 간장이식팀
- 조혈모세포이식팀
- 안구(각막)이식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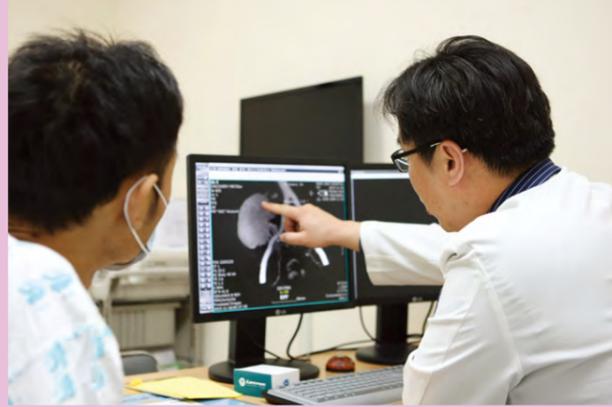
TRANSPLANT CENTER

긴장 놓지 않는 초심으로

‘말기 신부전증’이란 신체 내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장이 비가역적으로 기능을 상실한 상태를 말합니다.

말기 신부전증으로 진단받으면 평생 신장 대체 요법을 시행 받아야 하며, 대체요법으로는 혈액 혹은 복막 투석 등의 투석 요법과 신장이식 수술이 있습니다. 투석과 신장이식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글_ 박근명 교수 / 외과



두 생명을 살려야 하는 간이식

간 이식은 치료를 목적으로 정상적인 간을 적출하여 환자의 체내에 옮겨 붙여서 간의 기능을 하게 하는 수술입니다. 간 질환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또 누구나 기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글_ 신우영 교수 / 외과



신장이식팀 구성

신장내과, 그리고 공여자에서 신장절제술을 하는 비뇨기과 등 3개 진료과로 이루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이식 성적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수술 직후 사망률은 1~3%를 보입니다. 이는 수술 기술의 문제보다 신장이식을 받는 만성신부전 환자가 가진 수술 위험도 때문입니다. 한시라도 긴장을 늦추면 좋지 못한 수술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늘 초심을 잊지 않고 수술장에 들어섭니다.

현장에 느끼는 보람과 아쉬움?

신장이식과 관련한 의료진이라면 아마 이식 후 환자의 시원하게 내려지는 소변과 크레아티닌 수치를 보면 가장 큰 보람을 느낄 겁니다. 그러나 이식 2년 이내 10%의 환자에서 거부반응, 감염 등의 이유로 이식받은 신장을 포기해야할 때는 환자의 절망은 물론이고 다시 투석치료를 권해야 하는 의료진의 마음은 안타깝습니다.

이식만 잘되면 환자가 아니다?

신장이식 환자 역시 장애등록이 주어집니다. 단지 투석 대신 신장 대체요법을 하는 만성신장 질환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추적관찰이 필요하고 주신분의 깊은 뜻을 생각하면 혈압, 혈당, 영양, 운동 등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의견교환 등 최선의 결과를 위한 노력

우리 팀은 대상자 및 수술 전 검사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식 전후 면

역역제제 요법 등과 수술전후 관리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또한, 비뇨기과와 외과 역시 수술 전에 적출 신장과 이식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수차례 논의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로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의견교환은 수술 후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사회사업팀을 통해 의료비 경감 지원

신장이식은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고, 이식 후 상황에 따라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회사업팀을 통한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비용 경감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식대상자와 절차

전신 마취를 받을 수 있는 투석을 받는 환자는 누구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이식 기증자 있는 경우

1. 수혜자와 기증자는 조직적합 항원 검사와 임파구 교차 반응검사를 외래에서 시행합니다.
2. 신장이식 수술이 결정되면 담당 주치의와 이식 팀의 코디네이터, 수혜자와 기증자가 함께 일정을 잡아 수술 전 검사와 신장이식 수술을 진행합니다.
3. 2000년 2월 9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체 신장 이식 수술 시에는 반드시 이식 전 장기 기증자의 순수성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KONOS)으로부터 장기이식을 위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조직적합 항원 검사부터 수술 일정까지 한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신장이식 기증자 없는 경우

1. 장기이식센터의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에게 오셔서 이식 팀과 상담을 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KONOS)에 뇌사 신장이식 대기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2. 기증받아야 할 건강한 신장은 뇌사 장기 기증자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절차를 위해 사전에 장기 이식센터에 등록하고 수술에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3. 등록 후 뇌사 장기 기증자 발생 시 KONOS에서 이식 수혜자를 선정하여 이식을 하게 되며, 이식을 받기 위해 기다리시는 기간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혈액형, 신장, 체중 조건 비슷해야

생체 간이식 제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식받을 환자에게 수혈이 가능한 혈액형이어야 합니다. 즉, 두 사람의 혈액이 같아야 하고 제공자가 O형 혈액형인 경우는 어떤 혈액형도 이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장, 체중 조건이 두 사람 간에 큰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공여자는 수술에 부적합한 중요한 질병인 심장, 폐질환, 신장 질환 등이 없어야 하고, 지방간이 심하면 적합하지 않습니다.

간경변증과 간세포 암,

그리고 소아의 담도폐쇄증인 경우 이식 대상

국내에서의 빈도가 높은 간이식의 대상 질환은 성인에서는 간경변증과 간세포 암이고, 소아에서는 담도폐쇄증입니다. 성인 간경변증 및 간세포 암의 70~80%가 B형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고 점차 알코올성 간 질환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외에 A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간 부전이 10여 년 전 급증을 한 적이 있으나, 이후 예방접종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근래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반대로 수술법과 약물의 발달로 간이식의 급기증은 감소 추세이고 일반적으로 간 이외에 발생한 악성종양, 현재 진행 중인 감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식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이식 3~6개월 후, 정상에 가까운 삶으로

간 이식 수술을 시행 받은 후 3~6개월 정도 지나면 정상 혹은 정상에 가까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은 환자 스스로 이식 팀의 지시에 따라 이식 받은 간이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수술 후에는 이식된 간의 거부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면역억제제를 지속해서 복용하게 되므로 체내의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특히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간경변증으로 인한 말기 간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는 피부는 황달로 노랗고, 배는 복수로 인해 불러 있지만 온 몸은 말라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이 간 이식수술을 하고 나서 하얀 피부와 건강한 체격으로 돌아온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우리 팀의 보람입니다.

주요받는 간 이식의 필요&충분조건은... 절제 후 유일하게 자라는 장기 간, '생체 간 이식'

사람의 얼굴, 키, 몸무게가 다르듯이 간 모양도 다르다. 우리 몸에서 간은 절제 후 자라는 유일한 장기이다. 건강한 사람의 간은 간 기능이 충분히 유지되기 때문에 간의 60%~70%를 절제해서 기증하더라도 안전하다.

1. 자발적인 기증 의사가 있는 공여자를 대상으로 한다.
2. 우선 공여자는 외래에서 선별 검사를 통해 혈액형, 일반혈액검사, 간 기능 검사 및 간염 바이러스 감염 등을 확인한다.
3. 영상학적 검사를 통해 간의 혈관 및 담도에 대한 해부학적 구조, 간의 용적 등을 확인한다.
4.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통해 정신심리학적 상담을 받으며, 위의 검사 및 진료를 통해 이식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이식에 대한 승인을 요청한다. 이와 동시에 수혜자의 검사를 진행한다.
5. 이식의 급기증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또 이식을 받을 수 있는 전신 상태인지를 검사로 통해 확인한다. 공여자와 수혜자가 생체간이식에 적합하고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간이식 수술을 진행하게 된다.

새 희망을 안겨주다

인하대병원 조혈모세포 이식팀은 끊임없이 최신 의료지식과 기술을 임상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전문분야의 의료진들이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 가장 좋은 치료를 환자에게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_ 이현규 교수 / 혈액증양내과



마지막 길에서 가능한 가장 밝은 선물

안구(각막) 이식팀은 본원 안과에서 안 은행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뇌사자 또는 사후 기증 안구(각막) 이식은 생각만 조금 바꾸면 기증도, 수술을 받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안과에서는 이러한 인식을 바꾸는 역할에 앞장서고 싶습니다.

글_ 정지원 교수 / 안과



조혈모세포 이식은 최첨단 의료 집합체

조혈모세포 이식은 병든 환자의 조혈모세포를 건강한 기증자의 조혈모세포로 치환하여, 암세포를 박멸하고 정상적인 조혈모세포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는 최첨단 의료의 집합체입니다

조혈모세포이식 대상자는 급성/만성 백혈병, 악성 림프종, 골수형성이상증후군, 재생불량성 빈혈, 만성골수증식성 질환 환자 중 조혈모세포이식을 통해 가장 좋은 치료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되는 환자입니다.

혈액질환을 완치할 수 있는 강력한 치료

조혈모세포이식은 심각한 혈액암이나 혈액질환을 완치할 수 있는 강력한 치료입니다. 하지만 기증자의 검색과 기증 절차, 이식 과정에 수반되는 여러 합병증을 이겨내야 하는 길고 힘든 과정이기도 합니다. 의료진을 신뢰하고 협조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며 끈기 있게 치료 과정에 임해야 합니다.

외래 문을 나서는 건강한 뒷모습은 가슴 벅찬 감격을

혈액암이나 혈액질환으로 인해 암세포와 심한 혈구 감소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조혈모세포이식을 한 후에 혈액검사가 호전되고 암세포가 사라져서 건강할 때의 모습을 되찾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보람과 기쁨을 느낍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혈액검사를 확인하던 중 생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혈액 수치들이 정상으로 회복되어 수혈이나 촉

진제를 투여하지 않을 수 있게 될 때 기쁨을 느낍니다.

이식 후 합병증을 이겨내고 면역 억제제와 각종 치료 약을 중단할 수 있게 되어 수개월 이후 방문을 예약하며 훌기분한 모습으로 외래 문을 나서는 환자의 건강한 뒷모습을 볼 때는 가슴 벅찬 감격을 느낍니다.

적합한 면역형 기증자를 확정해야

조혈모세포이식이 필요한 환자를 선별한 후 적합한 기증자를 검색하고 적합한 면역형을 가진 기증자를 확정합니다. 환자의 치료 과정이나 의학적 상태에 따라 최적의 이식 시기를 결정하고, 이식 전에 불량한 골수를 제거하고 생착이 잘되도록 항암제, 방사선치료, 면역억제제 등을 투여한 후 기증자의 조혈모세포를 채취하여 환자에게 정맥을 통해 주입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생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친 집중적인 약물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환자의 의학적 상태, 기증자의 종류, 조혈모세포이식의 방법, 합병증의 유무와 정도에 따라 다양하며, 보통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

조혈모세포이식팀

- ♥혈액증양내과: 김철수/이문희/이현규/임주한 ♥소아과: 김순기
- ♥감염내과: 이진수/백지현/권혜윤 ♥진단검사의학과: 남정현/문연숙
- ♥병리과: 최석진 ♥방사선종양학과: 김우철, 김현정 ♥외과: 박근영
- ♥정신과: 김원형 ♥코디네이터

인천지역 안구(각막) 기증과 이식 수술을 위해 노력할 터

많은 사람에게 볼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 우리 팀의 목표입니다. 또 장기이식센터 보고에 의하면 2014년 국내 총 각막 이식수술 중 인천지역은 약 5%, 안구(각막)기증은 약 6%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팀은 인천 지역사회에서 기증과 이식 수술을 받는 환자를 꾸준히 늘리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안구(각막) 전체, 시신경, 망막까지 이식하는 것은 아니다

간혹 안구(각막) 이식이라 하면 시신경 및 망막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각막은 눈의 검은 동자를 덮고 있는 투명한 막으로 눈을 보호하고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사물을 볼 때 창문 역할을 해줍니다. 혼탁해진 각막을 깨끗하고 투명한 각막으로 교체해주는 것이 안구(각막)이식 수술입니다.

따라서 시신경이나 망막 등 다른 부분이 건강할 때 시력 호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이식 수술 전 시력 회복 기대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또한 안구(각막) 이식은 수술 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일정기간 스테로이드 또는 면역억제제의 사용이 필요할 수 있고, 특히 국소 점안제의 사용은 장기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정기적인 경과 관찰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식된 각막의 5년 생존율이 64% 정도이고 질환에 따라, 환자 상태에 따라 거부반응 및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한번 수술을 받아도 추가적인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구(각막) 이식 절차 및 수술비용

해당자는 장기이식관리센터에 대기자 등록을 하게 되며 환자는 국내 기증각막 및 수입 기증각막에 대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기증각막의 경우 대기자 등록 순서와 질병의 중증도 및 전신 상태, 주거지 등에 따라 우선 순위가 정해집니다. 적출된 기증각막은 약 2주까지만 보관이 가능하며 그 기간에 수술이 진행됩니다. 이 경우 기증각막에 대한 비용 부담은 없으며 다만 안구(각막) 적출 비용, 운송 비용, 기증자의 검사 비용은 수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수입각막의 경우는 환자가 원하는 수술날짜에 맞추어 외국 안 은행으로 각막을 요청하게 되며 수입 기증각막에 대한 비용 및 운송비 등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중심 역할 하는 팀으로

수술 후 환자의 시력 회복 또는 통증 감소 등의 호전 경과를 보게 되면 무척 기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사고, 죽음에도 보호자가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장례 절차가 조금 지연되는 불편함에도 안구(각막)적출을 기다려 주시는 경우,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반면 사후 기증 의사를 생전에 밝혀졌음에도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많이 아쉽습니다.

조금씩 우리 사회 분위기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될 거라고 믿으며 그 중심 역할을 하는 안과의사로서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자와 함께 극복해나가는 동지로서의 보람과 환희

환자와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진단, 치료계획과 예후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상의하는 것이 다학제 진료다. 일정 협의가 빠르고 종합적 결론을 내릴 수 있어 가장 적절한 치료방법을 수립할 수 있다. 또, 환자의 여건을 잘 이해할 수 있어서 의료진과의 신뢰감이 향상되고 이는 최선의 진료로 이어진다.

글_윤상민 교수 / 비뇨기과 사진_손보광 / 홍보팀

배뇨장애로 온 환자, 전립선암 진단

얼마 전 어느 저녁때와 같이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전립선암 사망률 증가율이 1등을 차지했다는 보도자료가 나왔다. 무려 30년 전보다 10배는 높아졌다는 것이었는데 이때 불현듯 한 환자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65세 남자 환자로 배뇨장애를 주소로 내 진료실에 들어왔다. 처음엔 나이 들면 배뇨장애는 누구나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수롭지 않은 일인듯한 표정을 하며 단순하게 전립선 약물치료를 원했다. 하지만 나는 단순 배뇨증상일 지라도 전립선 비대증 뿐 아니라 전립선암 가능성이 있음을 환자에게 설득하고 직장수지 검사와 피검사(전립선 특이 항원 : PSA)를 시행하였다. 그 후 상승된 PSA수치를 확인하였고 다시 환자에게 전립선 초음파와 이를 이용한 전립선 조직 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시행 결과는 역시나 걱정했던 대로 전립선암으로 진단되었다. 환자는 진단명을 듣고 이때부터 매우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치료 방향에 대해 걱정스러운 말투로 물어봤다. 그래서 전립선암의 병기를 알기 위해 복부 컴퓨터 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뼈주사 검사(Bone Scan)등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이를 시행하였다.

혈액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영상의학과 등 다학제 진료팀과 환자가 만나다

다학제 진료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어 혈액 종양내과 임주한 교수님에게 협진을 의뢰하였고 며칠 후 다학제 진료팀에서 혈액 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영상의학과 등으로 이루어진 다학제팀이 이루어졌다고 연락이 왔다.

복부 컴퓨터 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뼈주사 검사(Bone Scan) 영상을 보니 다행히도 환자의 암 조직은 전립선 피막을 벗어나지 않고 전이 소견을 보이지 않아 2기로 진단되었고 근치적 수술과 방사선 치료, 호르몬 등을 이용한 항암치료 모두가 가능한 상태였다.

다학제팀에서 여러 교수님들과 의견을 나눈 뒤 환자에게 각 치료 방법에 따른 상태에 대해 설명하였고 환자에게 질문을 듣고 대답하였다. 그 결과 치료방침은 1차 치료로 수술적 치료를 하기로 결정이 났다. 그리고 추후 수술 조직검사 결과에 따

라 추가 방사선 치료 및 호르몬 치료를 하기로 세부적으로 결론을 냈다. 환자와 보호자는 빠른 치료 결과와 한번에 여러 과를 같이 진료를 볼 수 있어서 매우 만족스러운 표정들이었다. 다학제 진료는 이처럼 여러 과의 세부 전문의가 한자리에 모여 진단과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그 치료 결과와 예후에 대해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궁금한 점을 바로 답변해주고 치료방법에 대해 상의할 수 있어 환자의 병원 방문횟수를 현저히 감소시키고 시간 및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진단과 검사 수술 등의 일정 협의가 빠르고 타과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듣고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어 가장 적절한 치료방법을 수립할 수 있다. 또한 환자와 보호자를 한자리에서 만나 환자의 여건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같은 질병을 위해 여러 전문의들이 힘을 모은다는 점에서 의료진에 대한 신뢰감 향상과 이로 인한 최선의 진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학제 진료가 아니었다면 각 과별로 외래 예약 및 진료가 이루어지기까지 적어도 수주 또는 한 달 가까이는 소모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든든한 동지로서의 환자와 의사

다행히도 수술은 복강경을 이용한 근치적 전립선 적출술을 시행하였고 걱정했던 수술 이후의 요실금 증상은 서서히 좋아져 현재는 보이지 않는 상태이다. 성공적으로 1차적인 치료는 끝났지만 수술 후 조직검사서 전립선 피막을 벗어난 3기 전립선암으로 진단되어 추후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추가적인 방사선 조사 치료 등에 대해서 상의 중인 상태이다.

암을 다루는 의사는 환자와 함께 항상 위험한 상황과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고 좌절을 겪게 되기도 하지만 이를 극복해나가는 동지로서 같이 이겨냈을 때의 보람과 환희도 같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직업인 것 같다. 그리고 다학제 진료 때의 경험처럼 여러 전문과 의사들과 같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때 나를 도와주는 든든한 동지가 있다고 생각하니 더욱 힘이 나서 환자뿐 아니라 의사에게도 매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확신한다. 앞으로 전립선암은 식생활의 서구화와 운동부족 등으로 인해 계속 늘어날 것이고 우리 의료진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도 늘어날 지금 나 자신도 힘을 내본다.

●문의 : 비뇨기과 ☎ 032-890-2360

엉덩이 목욕, 그 10분의 미학

치료에 있어서 기다림의 느긋함이 수술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대표적인 질환 '치질'이 바로 그것이다. 항문은 소화기관의 마지막 출구이다. 깨끗하지 못하고 일견 수치스러운 장기로 오인되기도 하지만, 사실 항문만큼 섬세하고 민감한 장기를 필자는 아직껏 보지 못하였다.

글_ 최선근 교수 / 인하대병원 외과 대장항문분과

기다림의 미학의 백미(白眉), '좌욕'

필자는 외과의사다. 따라서 수술이 가능한 대부분의 질환에 있어서 수술을 통한 적극적인 치료를 선호하고 또한 환자에게 이를 권유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일단 빠르고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은가? 소위 말하는 '약발'이 먹힐 때까지 약물을 쓰면서 안전부절 할 필요도 없고 '좀 지켜보지 뭐' 하는 느긋함으로 다혈질적인 성질머리를 억누를 필요도 없을 것이다. '흑이면 흑, 백이면 백'이지 회색의 모호한 색감은 필자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필자에게도 예외적인 상황은 있다. 각종 신경에 의한 다양한 배변 반사로 조절되는 항문의 기능은 미묘한 해부학적 변화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만을 만병통치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고 치질 환자에게 무턱대고 뉘 놓고 기다리거나 스스로 좋아지기를 기대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적절한 환자의 노력이 가미된 기다림이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노력하면서 기다려야 할까? 그래서 오늘은 그 기다림 미학의 백미(白眉)인 '좌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한다.

항문을 물에 담가 효과를 기대하는 것

먼저 좌욕의 사전적 의미를 곱씹어 보자. 한자어 그 말 그대로 '앉아서(坐) 하는 목욕(浴)' 그래서 좌욕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힙배스, 즉 '엉덩이(hip) 목욕(bath)' 이라고도 한다. 또한, 독일어인 앉다(sitzen)에서 유래된, 어려운 말이지만 '시츠 배스' 라고도 하는데

이 역시 '앉아(sitz)하는 목욕(bath)' 이라는 뜻이다. 무엇이 어떻든 간에 좌욕이란 용어의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항문을 물에 담가 치료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단순히 항문을 물에만 담그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인가? 이 질문은 치질의 발병기전을 이해한다면 의외로 쉽게 풀린다.

항문 주위 혈관의 순환장애, 온수 좌욕과 괄약근 조이기로

치질이란 병적으로 늘어진 일종의 혈관 덩어리로 흔히 직립보행의 신물이라고도 일컫는다. 사람이 두 발로 걷게 되면서 중력에 의해 심장보다 아래쪽에 위치한 항문 쪽으로 혈액이 몰리게 되고, 또한 앉아서 변을 보게 되면서 항문으로 가해지는 압력으로 항문관 내 혈관과 결합조직이 모인 점막 하 근육이 압박되고 변성되어 덩어리를 이루면서 치질이라는 병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 정설이다. 결국, 치질은 원인이 어떻든 간에 항문주위에 분포하는 혈관의 순환장애로부터 시작된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외과적인 치질의 절제는 이러한 순환장애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기보다는 물리적으로 늘어진 혈관만을 잘라내 주는 증상에 따른 보조적인 치료일 뿐이고, 따라서 순환장애를 개선시켜주는 방법이야말로 치질에 의한 불편한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좌욕을 하면서 따뜻한 온수를 사용하는 것도, 항문 괄약근을 조였다 풀었다 하는 것도 모두 항문의 혈액순환을 도와 치료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과학적인 근거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비데를 이용한 뒤처리는 세정, 좌욕이라 하지 않는다

좌욕은 치질치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도 최고의 치료법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매우 번거로운 행위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필자의 외래에는 개인병원에서 해결하지 못한 십 년 이상 된 그야말로 국보급(?) 치질 환자들이 심심치 않게 내원하고 있다. 이미 기존의 치료방법에 지칠 대로 지친 이분들은 오시자마자 이구동성으로 '잘라주세요'를 외친다. 과연 잘라주는 것만이 최선일까? 이분들께 '그간 좌욕은 열심히 하셨습니까?' 라고 되물으면 심중팔구 '그럼요... 약도 꼬박꼬박 먹고 변 보고나면 물로만 닦고 샤워하면서 항문도 꼭꼭 챙깁니다.' 라고 한다. 일견 맞는 말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비데가 일상화된 요즘 비데를 가지고 있다면 배변 후 30초에서 1분 정도 뒤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샤워하면서 항문을 닦지 않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거기다가 입만 벌리고 물만 들이키면 손쉽게 약을 먹는 것이 무어가 그리 대수인가... 비데를 이용한 뒤처리는 세정이라 하지 좌욕이라 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샤워를 하면서 항문을 닦는 것은 그야말로 샤워이지 이를 좌욕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이분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당연히 해야 하고,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행위만을 하면서 이를 좌욕이라고 자기세뇌를 하고 과대 포장하는 것은 아닌지...

따끈한 물에 엉덩이 담그고 '조였다, 풀었다' 하면 금상첨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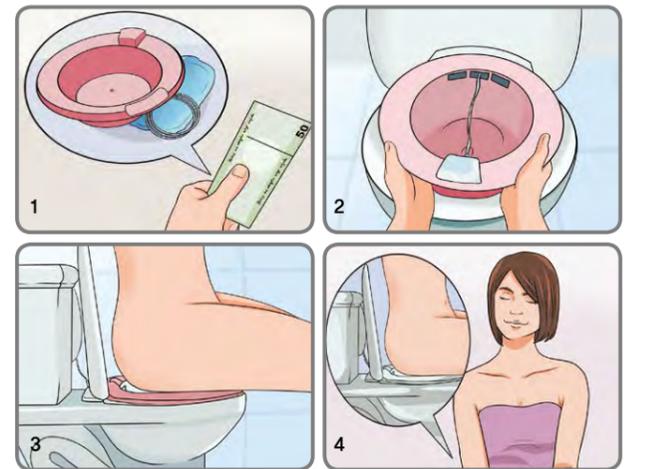
'좌욕을 한다' 함은 그야말로 이것만을 위해 장치를 설치하고, 정성을 기울이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좌욕기를 양변기 위에 얹어놓고(인터넷 검색하면 저렴하게 구입) 손가락을 넣었을 때 따끈한 정도인 40~43℃의 온수에 5~10분 동안 엉덩이를 담가보자. 동시에 항문 괄약근을 조였다 풀었다한다면 더더욱 금상첨화일 것이다. 그 순간 당신은 치질이 있건 없건, 치질 수술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그 편안함에 금방 매료될 것이고 항문주위가 따뜻해지면서 괄약근이 이완되고 통증도 줄어들면서 혈관을 이완시켜 혈액순환이 촉진되는 신세계를 반드시 맛보게 될 것이다. 이때 주의할 점은 좌욕기를 바닥에 놓고 쪼그려 앉는 자세로 좌욕하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뜰이나 성나 부풀은 치질이 이로 인해 더 악화될 수 있음은 자명하다. 또한 한 번에 십 분이 넘어가는 지나친 좌욕사랑(?)은 사랑이 아닌 집착임을 명심하자. 더운 온탕에 과도하게 몸을 담그면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오히려 불편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도 한술 더

떠서 효과를 더 보겠다고 소금이나 각종 첨가물을 온수에 넣는 것은 항문 점막을 자극하여 증상을 악화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자신의 항문 정성껏 닦는 것, 치질 완치의 길

좌욕은 깨끗한 맹물로 하는 것이 제일 좋다. 이미 비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세정버튼보다는 여성 그림이 그려져 있는 비데버튼을 눌러서 온수로 항문부위를 마사지함으로써 좌욕을 대신해도 충분하다. 좌욕의 횟수는 일정한 시간 간격을 가지고 하루 2~3회 정도면 적절하다. 단, 배변 직후에는 반드시 추가로 한 번 더 좌욕을 하거나, 못해도 물을 이용에 세정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좌욕을 한 후에는 엉덩이나 항문에 남아있는 물기를 마른 수건으로 마사지하듯이 눌러 닦아주거나 헤어드라이기로(이때 화상을 입지 않도록 조심하자) 잘 말려주도록 한다. 물기가 남아있는 습한 항문은 가려움증을 유발하거나 치질수술 직후라면 염증을 조장하는 등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좌욕 등의 비수술적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아서 치질수술을 받았을 경우라도 좌욕은 꾸준히 시행하도록 하자. 좌욕을 하면 대변으로 인한 수술부위의 감염을 예방하고, 상처 주변의 통증과 부종도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항문주위의 혈액 순환이 원활하게 되어 상처가 쉽게 아물 수 있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도 동시에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학문을 정성껏 닦는 노학자(老學者)의 심정으로 자신의 항문을 정성껏 닦는다(?)면 치질의 완치가 그리 멀게만 느껴 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맺음말로써 '엉덩이 목욕'에 대한 필자의 지루한 줄필을 줄일까 한다.

엉덩이 목욕 방법(좌욕) _____





용현벌 미나리밭에 심어진

하와이 사탕수수

인천(仁川)과 하와이(荷哇伊)의 앞 글자에서 따온 '인하'

1979년 2월 24일 비 오는 오후, 인하대 인경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들 사이에 프란체스카 여사, 조중훈 이사장, 이재원 총장 등의 모습도 보였다. 잠시 후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모습이 보였다. 동상으로 그가 다시 돌아왔다. 4·19 혁명 후 각지에 있던 그의 동상이 철거된 후 처음으로 이곳에 건립된 것이다. 그가 1965년 세상을 떠난 후 첫 번째로 세워진 동상이었다. 하와이 한인동지회에서 보낸 성금 5만 달러를 들여 6m 30cm(좌대3m 포함) 높이로 세워졌다. 화강암 석대의 추념문에는 '하와이 이민의 한 많은 눈물을 받아 본교 창립에 크게 이바지한 초대 대통령'이라고 쓰였다. 그러나 동상은 학원 민주화 바람을 비켜가지 못했다. 1983년 10월 학생들에 의해 동상은 밧줄에 묶여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 동상은 현재 학교 측에서 원형대로 복원해 보관하고 있다.

인하대와 이승만 전 대통령 인연은 19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하대 총동창회 50년사'에 따르면, 1903년 하와이에 사탕수수 재배 노동자로 떠난 100여 명은 1913년 자녀교육을 위해 하와이에 한인기숙학교를 설립했다. 이들 이민자의 90%는 인천 출신이었다. 그때 하와이 교포들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교장으로 초빙했다. 그는 이 학교에서 교육사업을 펼치며 1918년 한인기독교학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1919년 이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에 선출돼 학교 운영에 전념하기 어려웠고 결국 학교는 1947년 폐교됐다. 그러자 교포들은 한인기독교학원의 판매대금을 조국의 대학 설립기금으로 보내고 싶다는 뜻을 이 전 대통령에게 전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와 같은 최고 수준의 대학을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던 이승만 대통령은 학교 부지로 인천을 점찍었다.

인천시는 용현벌 부지 41만3,223㎡를 무상 제공했다. 그곳은 온통 미나리밭과 배추밭이었고 6·25 전쟁 이후에는 잠시 피란민수용소로 사용되었던 곳이었다. 1954년 그 벌판에 '인하공과대학'이란 상이탑이 세워졌다. '인하'라는 이름도 인천(仁川)과 하와이(荷哇伊)의 앞 글자에서 따왔다.

용현동의 대표적 비탈길 독쟁이 고개와 인하대 후문의 명소 당구장

용현동은 예전에 비랑이 혹은 비랭이라고 불렸다. '비랑'이란 '파도(浪)가 난다(飛)'는 뜻으로 쓰였다고 전해지긴 하나 '비탈진 곳'이라는 해석이 더 우세하다. 용현동의 대표적 비탈길은 흔히 얘기하는 '독쟁이 고개'다. 독쟁이는 발음 편의상 독정리에서 파생한 명칭이다. 독정(讀亭)은 책을 읽는 정자라는 뜻이다. 이곳은 배산임수의 땅 모양이다. 수봉산을 뒤로하고 앞으로는 승기천 개천이 흐르며 멀리 인천 앞바다가 훤히 보이는 양지바른 기슭이었다. 책 읽기 알맞은 정자가 들어서기에 딱 좋은 곳이다. 훗날 인하대학교가 이곳에 터를 잡게 된 운명은 이미 타고난 듯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용현벌에 대학이 들어설 운명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이곳에는 독쟁이 고개가 있다. 이는 독정리에서 파생한 명칭이다. '독정(讀亭)'은 책을 읽는 정자라는 뜻이다. 미나리밭과 피란민수용소로 사용했던 너른 터에 상이탑이 우뚝 서게 된 운명은 이미 땅 이름에서 타고 난 듯하다. 인하대학교는 하와이 이민자의 한 많은 눈물과 땀이 토대가 된 배움터다.

글·사진 유동현 / 인천시 '굿모닝 인천' 편집장.
'골목, 살아지다' 저자



↑ 현재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옛 SK저유소 / 수준원점(水準原點)

‘수준원점(水準原點)’과 국내 최초로 설립된 해성보육원

인하공전 7호관 뒤에는 중요한 국가시설이자 문화재가 자리 잡고 있다. 언뜻 보면 침성대처럼 보이는 3m 46cm 붉은 벽돌의 원통형 건축물은 ‘수준원점(水準原點)’이다.

이 수준원점은 대한민국 지형 높이의 기준점이 된다. 즉 백두산의 높이 해발 2,744m는 이곳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바다로부터의 높이를 말하는 해발의 기준점이 바로 이 수준원점이다. 원래는 당시 바닷가였던 중구 향동1가 2에 설치했다. 하지만 바다를 계속 매립하자 이 수준원점을 더 이상 바다 옆에 두기 어려워 육지 안으로 옮기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때 이전 대상지로 떠오른 곳이 인하공전 캠퍼스다. 지반이 평탄하고 단단했기 때문이다. 마침내 수준원점은 1963년 12월 향동 바닷가에서 인하공전으로 옮겨졌다.

인하대와 같은 울타리에 있는 정석항공고 뒷문 건너편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보육원인 해성보육원이 있다. 이 보육원은 우리나라 개화기 역사의 한 페이지를 품고 있다.

프랑스 샤르트르 성마오로 수녀회는 1894년 가을 길거리에 버려진 4살과 12살 된 여자아이와 이듬해 4월 2살 된 남자아이를 보살피기 위해 담동성당 내에 해성보육원을 설립했다. 광복 이후 고아의 수가 급격히 늘자 보육원은 1948년 현재의 자리에 용현동 분원을 설치했다. 6·25전쟁 때 신부와 수녀들은 200여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송도와 덕적도 등으로 피란을 다녀야만 했다. 전쟁이 끝난 뒤 보육원을 재정비하고 1975년에 아예 보육원 자체를 용현동 분원으로 이전하고 오늘에 이르렀다.

전쟁 물류기지였던 ‘SK저유소’

인하대 옆에는 얼마 전 까지 큰 공터가 있었다. 흔히 ‘SK저유소’라고 불리던 곳이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에는 군수공장 히다치가 있었고 광복 후에는 POL(Petroleum Oil Lubricants)이라 불린 미군유류보급창이 있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름을 인천항을 통해 들여왔고 이곳에서 각 지역으로 송유관 혹은 트럭으로 기름을 수송하는 일종의 물류기지 기능을 했다.

정전협정을 앞둔 1953년 6월 13일 밤 10시 북괴 폭격기 3대가 인천 상공에 나타나 이 유류보급창을 기습 공격하고 이어 인근 신흥동 소재 송도직물공장에 폭탄 수발을 투하했다. 공장에서 잠자던 여공 수명이 죽거나 부상당했고 유류창 부대는 온통 불바다가 되었다. 부대의 화재는 거의 일주일 이상 지속되었고 결국 불도저로 모래를 덮어 진화했다. 빈 드럼통들은 송의동 공설운동장으로 운반했고 드럼통을 펴서 처음으로 운동장 담을 쳤다.

부대의 규모는 땅 크기만큼이나 엄청났다. 인천 POL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가 959명에 달했다. 1966년 4월 16일 도서실, 의무실, 각종 오락실을 갖



↑ 골목 깊숙이 있는 이윤생·강씨 정려



Smart choice Best care 20 Nov + Dec 21

춘 현대식 3층짜리 POL노동회관을 낙성했는데 그 오프닝에 당시 인천시장이 참석했다.

먹고 살기 힘든 시절, 기름통은 지역 건달들의 좋은 표적이었다. 인천문화재단 대표 김윤식 시인은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글로 쓴 적이 있다.

“미군 유류창을 출발한 휘발유 드럼 운반 트럭들은 옛 장안극장 위쪽 송의동 308번지 일대를 관통하는 샛길을 통해 경인 국도로 나서는 데 이 사거리에서 일단 정지를 했다가 부평 쪽으로 우회전했다. 이 길은 약 15도 정도 경사져 있어서 트럭들은 그다지 빠른 속도를 내지 않고 달렸다. 사거리에도 달리기 직전, 트럭이 더욱 속력을 줄일 무렵 골목에 숨어 있던 청년들이 두 명씩 트럭에 기어오르는 것이다. 운전석의 미군 운전병은 이 사실을 까마득히 모른 채 그냥 앞만 보고 사라지고, 그러면 골목에서 득달같이 구루마가 나오고 드럼통은 거기에 실려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이었다.”

1972년 미군이 철수하면서 한때 광활한 나대지 한 귀퉁이에는 부천유공축구단과 SK와이브스야구단의 연습장이 들어서기도 했다.

시도기념물 제4호인 이윤생·강씨정려(李允生姜氏旌閭)

용현동 골목에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기념물이 있다. 지금은 빈터로 남아있는 유리(유류)부대 뒤편에 시도기념물 제4호인 이윤생·강씨정려(李允生姜氏旌閭)가 있다.

정려는 충신, 효자, 열녀 등을 기리기 위해 마을에 세운 건축물이다. 1604년

그때, 이곳 용현동

영진당구장 영진당구장은 46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작고한 창업주 이순철 옹은 학생들에게 번 돈은 다시 학생들에게 써야 한다는 확고한 철학을 갖고 있었다. 장학사업에 관심이 많아 상당한 금액을 인하대에 매년 기부했다. 본인은 찢어진 신발을 신고, 새옷 안 사면서 모은 돈이었다. 이런 공로로 당시 인하대 총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용현동에서 태어난 이윤생은 1636년(인조14)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모집하여 인근의 낙섬으로 들어가 강화도에서 남한산성으로 통하는 길목을 차단하며 청나라 군사를 무찔렀다. 다시 청나라 대군이 침입하자 사력을 다해 싸웠으나 결국 패하고 의병들과 함께 34세 나이에 전사하였다. 그의 전사 소식을 들은 부인 강씨도 곧 바다에 몸을 던져 순절하였다. 후에 철종은 정려를 내리고 그를 좌승지에, 강씨를 숙부인으로 봉했다.

2년 전 용현동 일대에서 영화 한편이 촬영되었다. 인생 끝에 찾아온 아름다운 사랑을 깊은 시선으로 담아 낸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에는 용현동 풍광이 고스란히 담겼다. 영화 담당자는 용현동 일대를 둘러보고 로케이션 장소로 바로 OK했다. 연아(송지효)의 직장인 용현3동 주민센터를 비롯해 비룡센터, 용현시장 등이 필름 속으로 들어갔다. 6·25 전쟁 후 독쟁이 골목과 수봉산 기슭에는 이북에서 내려 온 피난민들과 시내에서 쫓겨온 철거민들이 몰려들었다. 인천에서 제일 먼저 시내버스 노선이 개설된 곳일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정착했다. 그들은 영화 속의 노인들처럼 지나온 시간에 순응하며 동네와 함께 그렇게 늙어갔다.

물탕병이 거리 인천항은 수산물이 모이고 노동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곳이었다. 당시 이귀는 썩 생선으로 이를 이용해 얼큰한 탕을 끓여 안주나 끼니로 사 먹기에 더없이 좋았다. 용현동에 물탕병이 거리가 형성된 것은 40년 전이다. 용현동의 성진물탕병에서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물탕병이를 해장국처럼 끓여 판 후 용현사거리 부근에 하나둘씩 물탕병이집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물탕병이 거리가 형성되었다.

“내가 그런 것처럼...
나의 음악이
그들에게
힘이 된다면 즐겁죠!”

Koh Sangji

지난 9월, 메르스 집중피해 병원의 의료진과 환자, 가족 및 지역주민의 아픔을 공감하고 희망 메시지를 전하는 의료기관 순회공연사업 ‘당신을 위한 콘서트’ 공연이 인하대병원 로비에서 열렸다. 반도네온이라는 독특한 악기 연주로 관객의 마음을 위로해준 뮤지션 고상지 씨를 만났다.

에디터_ 이정희



‘당신을 위한 콘서트’ 첫날, 인하대병원에서 시작하다

“병원 연주를 하고 싶었어요. 예전에 백혈병 환자의 보호자를 위한 공연을 했어요. 보호자가 묵고 있는 작은 공간에서, 마이크 없이 그렇게 한 공연이었어요. 우울하던 표정이 음악과 함께 좋아해 주시니 저도 참 뿌듯했죠.”

그래서 이번 공연을 꼭 하고 싶었던 고상지 씨다.

링거병 달고 오신 분도 꽤 계셨는데 거동도 못하실 만큼 아프신 분은 병실에 누워계실 거라고 말하는 그녀는 힘든 보호자에게 위로가 되고 싶었다.

“무거운 보호자의 마음을 환기시키기 위한,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은 모두의 워너비잖아요. 저도 의사의 마인드를 참 좋아하는데 이번 메르스 때 의료진이 많이 애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 초점이 맞추어진 콘서트 아닐까요?”

그녀의 공연 목적은 아주 분명했다.

‘억지’ 보다 ‘좋아서’ 해야 웰빙

특별히 정해놓고 하는 운동은 없지만 주로 자전거가 이동수단이다. 운동의 필요성은 느끼는데 즐겁지 않은 건 안 하고 싶은 그녀는 ‘영춘권’ 이 배우고 싶다.

“예전에 배우다 손을 다쳐서 연주를 못했어요. 지금도 악기 연주를 1년 정도 쉴수만 있다면 다시 배우고 싶어요.”

웰빙이란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좋아하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지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절제된 생활을 한 사람이 폐암, 간암에 걸리는 것을 보니 ‘억지’ 보다 좋은 것 하되 적당한 절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전한다.



메르스 방역을 진두지휘하며 청정지역 인권을 사수한 이진수 교수(감염내과)와 고상지 씨.

‘곡 쓰는 사람’으로 불리고 싶은 바람

카이스트 시절, 탱고음악에 빠져 지금은 한국을 대표하는 반도네온 연주자이면서 작곡가인 그녀는 요즘 ‘곡 쓰는 사람’으로 불리고 싶다는 바람이 생겼다.

“음... 요즘은 작곡과 편곡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여요. 연주자와 작곡가 중 하나를 고르라면 작곡, 편곡을 잘하고 싶어요. 애니메이션이나 백 그라운드 음악에 관심이 많아요. 스킬을 뽐낼 수 있는 연주곡보다 영상과 어울리는 백 그라운드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곡을 쓰려고 하고 지금 몰입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마무리 & 신년 콘서트로 출발

“훌륭한 작곡가들의 탱고 커버 앨범을 준비 중이고 1월에는 싱글 앨범도 슬슬 나올 겁니다. ‘김동률 콘서트’ 무대를 함께 했다는 건 좋다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영광스럽고 인생에서 가장 의미 깊은 일중 하나이죠. 그리고 삼시세끼, ‘꽃보다 할배’, 특히 가수 택연 씨가 김치볶음밥 만들 때 BGM으로 나온 ‘삼시 세끼’ 장면은 1집 ‘출격’ 의도를 그대로 살려준 것 같아 뿌듯했어요.”

자신의 음악에 대한 후기에 관심이 많다는 고상지 씨.

자신의 음악을 듣고 힘을 내고, 자신이 음악으로 에너지를 얻는 것처럼 또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즐거울 수 있다고 전한다. 또 기회가 된다면 위로해 줄 수 있는 병원에서의 연주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갈 마음이 있음을 전한다.

그녀의 음악과 삶에 강한 영감을 주는 것은 ‘애니메이션’이다.

그래서 작곡을 비롯한 그녀의 모든 음악 작업은 대부분 특정 애니메이션의 캐릭터와 장면으로부터 영감을 받는다.

애니메이션 ‘겹쟁이 페달’과 ‘핑퐁’을 이야기하는 그녀의 얼굴에서 만화 방영시간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놀다가도 손뿔이 기다리던 시간에 맞춰 쪼르르 집으로 달려가던 누나 갖고 있을 추억 하나쯤 말이다.

순수하면서 깊이가 있고 자신의 색깔이 분명한 그녀, ‘곡을 잘 쓰는 뮤지션’으로 그렇게 우리 옆에 오래 서 있을 듯싶다.

고상지 신년 음악회 2016

2016년 1월 2일 오후 7시 / 세종문화회관 씨어터 / 공연 티켓 인터파크

본인이 작곡한 오리지널 탱고 곡들은 물론, 유명한 탱고 넘버를 함께 연주하며 탱고의 다양한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피아졸라(piazzolla)의 곡들은 드럼과 일렉기타를 더해 더욱 록킹하게 편곡했다. 또한 일렉트로닉 탱고 곡들을 포함한 미공개 신곡들을 다수 공개할 계획이다.

한 방울로~~ 향기로운 사람이 되는 법!!

사람의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중 이성에 대해 호감을 느끼게 하는 ‘페로몬’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포인트, 이성 간 첫인상에서 강하게 작용하는 것 중의 하나가 ‘향기’라는 것이다. 소설가 ‘파트리크 쥐스킨트’는 그의 소설 ‘향수’에서 “냄새를 지배하는 자, 그가 바로 인간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이지 않는 향기로 누구에게나 좋은 인상과 느낌을 준다. 사람마다 생김이 다르듯 내게 잘 맞는 향, 나를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이미지와 그림자처럼 향기로운 사람이 되어보자.

글_ 편집부



향수란?

라틴어 ‘per fumum’, 연기를 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향수는 인류가 최초로 사용한 화장품으로 약 5,000년 전의 고대 사람들이 종교적 의식, 곧 신과 인간과의 교감을 위한 매개체로 사용한 데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오래 전에 향수가 보급되었는데 372년에 고구려의 승려가, 382년에 백제의 승려가 각각 중국에 파견되었다가 돌아오면서 향료도 함께 수입하였다고 한다.

향수 원액의 농도에 따라 퍼퓸, 오드 퍼퓸, 오드 트왈렛, 오드 콜로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향수 종류

향수 원액의 농도에 따라 퍼퓸, 오드퍼퓸, 오드트왈렛, 오드콜로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퍼퓸(perfume) 15~30%의 향료가 함유된 향수로 가장 진해 지속성이 뛰어나다. 지속시간은 6~7시간 정도.

향의 완성도가 높아 ‘액체의 보석’이라 불리기도 한다. 향의 긴 지속시간만큼 처음 뿌릴 때 향이 강하므로 소량 사용한다.

오드 퍼퓸 7~15%의 향료가 함유된 향수로 일반적이고 가장 대중적 향수이다. 향의 지속성이 좋아 5~6시간 이다. 깊고 풍부하지만 너무 진하지 않은 향을 가졌다.

오드 트왈렛 5~10%의 향료가 함유된 향수로 지속시간은 3~4시간 정도이다.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향수로 소프트한 느낌과 은은한 향을 가졌다.

오드 코롱 3~5%의 향료가 함유된 향수로 지속시간은 2~4시간 정도이다. 향의 농도가 진하지 않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향수를 처음 사용하거나 향에 민감한 사람들이 좋고 운동 후나 목욕 후에 사용하기 좋다. 보통 바디 미스트가 오드 코롱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향수의 향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느낌이 변한다

향수에 조합된 향료들마다 휘발하는 속도가 달라 나타나는 현상이다. 향은 처음 뿌렸을 때 향기인 톱 노트(Top note), 조급씩 변화되는 미들 노트(Middle note), 마지막까지 은은하게 유지되는 베이스 노트(Base note)의 3단계로 나뉜다.

탑노트(Top Note) 향수를 뿌렸을 때 그 즉시 나타나는 향으로 첫 느낌으로 점도는 약하다. 1~2시간에 사라진다. 지속성이 약하고 휘발성이 높다.

미들노트(Middle Note) 향수의 구성 요소들이 조화롭게 배합을 이룬 향의 중간 향이다. 탑노트 보다 느리게 진행되며 보다 육감적이다.

베이스 노트(Base Note) 베이스노트는 향의 기본 성격과 지속적인 품질을 결정한다. 향의 진정한 묘미는 베이스노트에 있다.

여름에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레몬, 오렌지, 라임, 자몽, 감귤 등 상큼한 느낌의 향으로 비교적 가벼운 느낌을 주는 향은 시트러스 계열, 겨울 향수에 비교적 많이 쓰이는 오리엔탈 계열은 동양에서 가져온 재료로 만든 다소 무겁고 따뜻한 향으로 머스크, 앰버가 대표적이다.

향수선택

향수를 시향 할 때는 깨끗한 피부나 종이 위에 한두 방울을 바르고 5~10분 정도 지나 알코올이 날아간 뒤 10cm 정도 떨어져 냄새를 맡아야 한다.

한 번에 2~3가지 이상을 테스트하는 것은 좋지 않다. 너무 많은 향을 맡으면 후각이 둔해져 오히려 판단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세 가지 이내로 제한해 시향하고,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바깥 공기를 쉰 후 다시 시향을 하는 것이 좋다.

첫 향을 맡고 꼭 2시간 이후에 잔향을 맡아 본인에게 어울리는 향인지 판단해야 실책이 없다.

겨울철, 목직함 잔향으로 매력적인 분위기 연출

크리스마스 와 연말이 다가오면서 선물로도 많은 관심을 끌게 되는 것이 또 ‘향수’다. 향수는 분위기를 바꾸는 데 쉽게 사용할 수 있어 이미지를 매력적으로 연출할 수도 있다.

겨울철에는 오리엔탈계열, 앰버, 머스크 등 향이 짙은 향수를 쓰는 것이 좋고 담배 냄새가 거슬리는 남성이라면 라벤더·로즈마리·민트 등을 사용해 보자.

‘그녀 또는 그’ 하면 생각나는 향기 나는 이미지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 단, 과한 사용으로 주위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예의도 지켜주면서 품격 있는 향기로 아름다운 겨울을 지내도 좋을 듯하다.

향수 뿌리는 Tip_

옷을 입기 전 맨살에 뿌린다
향수를 옷 위에 뿌리면 옷에 남아있는 냄새와 섞여 향이 바뀔 수 있으며 향수로 인한 얼룩이 생길 수 있다. 또한, 향수는 맨살에 뿌리는 것이 본연의 향을 가장 잘 유지하는 방법이다. 향수를 손목에 뿌린 뒤 비비지 않는다. 손목에 향수를 뿌리고 바로 문지르면 뿌린 직후 나는 향인 탑 노트가 깨져버린다. 또한, 열이 발생해 향이 변질할 수 있으니 향수는 뿌리고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햇볕이 강한 날, 노출 부위에 뿌리는 건 피해야 한다
향수를 피부에 직접 뿌렸을 때는 태양광선이나 외기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햇볕이 강해 향이 변질 될 수 있기 때문이고 피부염 또는 색소 침착을 일으켜 기미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계절에 따라서 어울리는 향도 다르다
온도와 습도가 높은 여름엔 향이 더 강하게 느껴지므로 시트러스, 그린, 아쿠와 등 시원하고 상큼한 가벼운 향을 사용하고, 일교차가 심한 봄과 가을엔 향이 쉽게 날아가기 때문에, 농도가 짙은 향을 선택하는 게 효과적이다. 계절에 맞춘 향수 선택은 자신을 더욱 섹스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만든다.

과하게 사용하는 것은 금물

모든 향수를 오드 두왈렛의 양에 맞추다 보면 음식점이나 실내에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함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옷 끝의 안쪽에 살짝 뿌려라

옷자락 끝에 뿌려주면 걸을 때 혹은 바람이 불 때 향기가 퍼지게 된다. 테스트 한 시향종이를 가방이나 책에 넣어두는 것도 향기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의 하나다.

건강을 생각하는 향수 사용법

- 두통이 생기는 원인은 강한 냄새. 좋은 나쁜건 간에 냄새는 많은 사람에게 두통을 일으킨다. 냄새가 신경계를 자극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페인트나, 향수, 몇 종류의 꽃냄새가 원인으로 꼽힌다.
- 향수를 뿌려 암내를 감추거나 파우더 등을 발라 땀 분비를 줄여 암내가 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으나 일시적인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향수 냄새와 암내가 섞여 냄새를 더욱 고약하게 만들 수 있다.
- 이토피나 건선 등의 피부질환자의 경우 피부의 면역체계와 균형이 약해져 있어 향수 등의 외부 자극이나 이물질에 대해 과민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 향수가 피부에 닿게 되면 면역 반응으로 염증을 쉽게 유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부층에 남아 오랜 시간 자극이 돼 피부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성년의 날, 향수를 선물하는 의미

- 성년의 날을 축하하는 의미로 장미, 향수와 키스를 선물한다. ‘열정’,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진 장미를 선물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성인이 된 젊은이에게 무한한 열정과 사랑이 지속하길 바라는 의미이다.
- 향수는 아름다운 향기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기억되고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성인이 되길 바란다는 의미이고, 키스는 성년이 된 만큼 서로 책임감 있는 사랑을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JCI 모의평가를 마치고 진정한 환자안전문화 성숙을 위한 선택

JCI(Joint Commission International)는 공신력 있는 병원 평가를 통해 의료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비영리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이다. JCI의 평가를 받는 의료기관은 환자 안전을 위한 표준화된 의료서비스 지침을 마련해 모든 환자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모하며, 결과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은 국제 수준으로 향상되는 것을 의미한다.

글_ 신정애 / Q_ 팀장 사진_ 이팀, 홍보팀



전일 추적 관찰 진행 결과 보고

Change the INHA



수술실 추적 관찰



JCI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299개 기준 1,218개의 조사항목에 대해 기준충족을 할 수 있도록 지침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 직원이 행동으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JCI본부에서 조사위원이 파견되어 현장조사를 시행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 안전한 진료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을 때 인증 획득이 가능하다.

현장 조사는 환자 추적조사와 시스템 추적조사 방법, 직원 인터뷰, 시설과 환경 점검, 환자 및 보호자 인터뷰, 서류 심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환자 추적조사는 환자가 입원되어 치료받는 병동을 방문하여 병원에서 수립한 지침대로 치료받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조사한다. 환자상태에 대해 정확하게 꼭 필요한 정보들을 파악했는지 환자들의 개별 요구에 맞게 치료계획이 수립되었고 치료가 제공되는지, 치료과정에 대한 설명을 잘하고 있는지 조사한다.

국제환자안전목표를 지키기 위해 전 직원들이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직접 관찰하거나 인터뷰를 통해서 조사한다. 시스템 추적조사는 우리병원이 안전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감염관리, 의약품관리, 직원에 대한 자격검증 및 교육훈련, 안전한 시설과 환경관리,

임상연구 관리, 장기이식 관리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시행한다.

우리 인하대병원은 2013년 JCI 재인증을 획득했고 내년에 3번째 인증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11월 2일부터 6일까지 모의평가를 받았다. 3년마다 재인증 획득을 추진하는 것은 환자안전을 위한 노력은 멈춰져선 안되고 계속해서 성숙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모의평가는 JCI에서 파견된 평가위원이 본원에 파견되어 촘촘하게 평가를 해주었고, 평가결과 조금이라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지침과 절차를 마련하여 수행하고자 한다.

인하대병원이 환자안전문화를 진정한 조직문화로서 성숙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환자안전을 강조하는 리더십, 효율적 의사소통을 통한 팀워크, 치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건의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견고히 하여 간호사, 의사, 병원 경영진 등 모든 의료진이 함께 공유하며 실천하는 노력을 지속하고자 한다.

메르스 사태 때 인천지역은 청정한 지역으로 감염된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인하대병원이 의료기관인증을 받으며 환자안전문화가 성숙되고 안전한 시스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 추적 관찰
1 신생아실 2 재활의학과
3 신장센터 4 서8병동
5 뇌출중 입원실
- 시스템 추적
6 장기이식센터
- 조사자
7 도현욱 교수 8 전진학 교수

인하대병원,
인하대학교·LA 올림픽 라이온스 클럽과 각막이식 지원 캠페인 시작

기증자들이 남기고 간 빛, 지역사회 희망 밝힌다!

2015년 11월 09일(월), 인하대병원은 인하대학교 최순자 총장과 LA 올림픽 라이온스 클럽으로부터 각막을 지원 받아 소외계층 환자들에게 각막이식 수술을 무료로 지원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글_ 김승봉 / 홍보팀

무료 각막 이식 지원 청사진 그리다

이번 각막이식 캠페인은 최순자 총장과 클럽의 오랜 인연으로부터 시작했다. 최 총장은 약 30년 전,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서 시작한 미국에서의 박사과정을 LA 올림픽 라이온스 클럽의 장학금 지원으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그 인연으로 총장 취임 이후에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지난 10월, 사회 공헌 활동을 논의하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세 기관의 대표는 인천 지역의 무료 각막이식 지원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게 됐다.

인하대병원은 우선 2016년 상반기까지 총 5개의 각막을 지원 받게 된다. 각막이식은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를 통해 국내 기증 각막을 이식받거나, 환자 개인이 외국에서 각막을 직접 구매하여 이식하는 방법이 있으나, 비용 부담이 크고 대부분 오랜 시간 동안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 이번 캠페인은 이식이 시급하지만, 형편이 어려워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지역사회 환자들에게 우선 지원하게 된다.

캠페인 통해 첫 번째 새 빛을 선물 받다

첫 번째 사례자인 이모(35,여) 씨는 시각장애인 1급이다. 20대 후반부터 녹내장을 앓기 시작하며 시신경에 많은 손상을 입었고, 수포성 각막병증이라는 질환으로 대부분의 시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생활해 온 이씨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새 빛을 선물 받게 됐다.

수술을 집도한 안과 정지원 교수는 “수포성 각막병증이란, 각막이식 수술의 주요 대상 질환 중 하나로, 각막 내피세포의 기능이 떨어져 각막이 붓고 물이 차는 병이다.”라며 “녹내장의 영향으로 환자의 시력이 완전히 회복될 수는 없겠지만, 꾸준히 통원 치료를 받는다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작지만 밝게 빛나는 희망이 되기를

최순자 총장은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나눔 실천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은 기증자 및 클럽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며, “기증자 분들의 숭고한 뜻이 담긴 각막을 꼭 필요한 분들께 전달하여, 그 뜻이 지역사회에 작지만 밝게 빛나는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인하대병원은 공적 사회공헌 활동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작년 5월, 공공의료 사업지원단을 신설하였다. 기업, 학교, 공공기관 및 국내외 구호단체 등 여러 기관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공헌, 해외 의료봉사 등 다양한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 11월 16일 개소한 장기이식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이번 캠페인을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활동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2015 공공의료 사업 현황

나눔과 봉사로 행복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인하대병원 공공의료 사업지원단은 공공교육홍보, 사회봉사, 의료지원사업 등 다양한 대내외 공공사업활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글 · 사진 김시현 과장 / 공공의료사업지원단



01 공공교육홍보사업

○ 청소년 나눔 학교(Sharing School)

- 연 2회 방학 기간 중 운영(2월, 8월) / 1회 5일 일정
- 2015. 8월 중·고생 37명 교육완료 / 2016. 2월 교육예정
- 병원직업체험, BLS교육, 무료급식소 봉사, 장애인복지관 봉사 등

○ 직업체험교실

- 2015. 4월부터 시작한 신규사업으로 인천시평생학습관 연계사업
- 6개 학교 140명 교육완료
- 남동중학교, 중앙여상, 함박중학교, 푸른꿈비전스쿨, 작전여고, 가현중학교
- 병원직업체험, BLS교육, 병원 투어

○ 찾아가는 직업체험교실

- 2015. 5월부터 시작한 신규사업으로 인천시평생학습관 연계사업
- 4개 학교 160명 교육완료
- 남동고등학교, 신승고등학교, 서창중학교, 만수고등학교
- 병원직업체험

○ BLS 교육(기본심폐소생술)

- 2015. 6월부터 공공의료사업지원단에서 주관
- 인천시 남부교육지원청 연계 자녀와 함께하는 학부모 교육(신규사업)
- 2015. 10월부터 시작한 신규사업으로 3개 학교 60명 교육완료(신선초, 연학초, 광성중)
- 학생 대상 교육
- 4개 학교 1,000명 교육완료(인하대학교, 동인천고, 부개고, 서인천고)
- 직장인 대상 교육
- 2개 사업장 220명 교육완료(영흥화력본부, 스테츠칩코리아)

○ 건강공개강좌

- 신세계아카데미 연계 4회 운영완료
- 인천시 평생학습관 연계 1회 운영완료(신규사업)

02 의료지원사업

○ 대외 및 행사 의료지원사업

-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미등록외국인 진료(월 2회)
- 인천국제마라톤대회(2015. 3. 29)
- 새얼문화재단 백일장(2015. 4. 18)
- 세계 책의 수도 인천(2015. 4. 22~4. 24)
- 생명의 바다 그리기(2015. 5. 9)
- 인천공항마라톤대회(2015. 5. 16)
- 프레지던트컵 골프대회(2015. 10. 6~10. 11)
- 스카이프스티벌(2015. 10. 15~10. 16)
- V리그-배구대회(2015. 10. 11~2016. 3. 5)

03 사회봉사사업

○ 의료사회복지

- 의료복지지원 : 167명 3.2억(2015. 3. 1~2015. 10. 30)
- 사회복지기금운영
- 미술치료사업(양현재단) : 매년 240명 치료
- 호스피스완화병동 지원
- 심뇌재활센터 상담 지원

○ 사회복지

- 나눔페스티벌(INHA HAPPY PLUS)
- 지역사회 다양한 나눔활동
- 자원봉사자실 운영(미용, 음료, 세발 등 활동)
- 도서대여실 운영(울목도서관 연계 순회문고 운영-년 2회 도서 교체 / 500권)
- 원내 자발적 봉사단 지원

04 해외지원사업

○ 해외의료지원사업

- 몽골 울란바타르 에를멘트벡드르 보건소, 바가노르 잠바크병원
- 기간 : 2015. 5. 18~5. 23(4박 5일)
- 진료 : 676명
- 카자흐스탄 알마티 고려인회관
- 기간 : 2015. 6. 16~6. 20(3박 5일)
- 진료 : 200명 + 국제협력팀 암환자상담 및 마케팅 지원
- 라오스 폰흥지역
- 기간 : 2015. 7. 6~7. 11(4박 6일)
- 진료 : 1,500명
- 우간다 키보가 치유니지역
- 기간 : 2015. 8. 5~8. 15(9박 11일)
- 진료 : 1,600명 + 말라리아 퇴치사업
- 우즈베키스탄
- 기간 : 2015. 9. 6~9. 14(7박 9일)
- 진료 : 1,200명 + 현지수술 4건 + 초청수술 4건

05 민·관 협력사업

○ 민·관 협력사업

- 해경, 웅진군 보건소, 인천의료원 연계 국내 취약지 의료지원사업
- 신규사업으로 매년 1~2회 진행 예정
- 연평도 의료봉사(2015. 9. 18~19)
- 주민 100명 진료 + 40명 중앙표지검사
- 관 주도의 공공의료 사업 연계 참여

그 황홀한 가을날에....

글_ 김계남 / 자원봉사자
사진_ 원공주 사회복지사 / 공공의료사업지원단



9월 말 경, 봉사자 사무실에 아우환 동참 신청서가 우리의 시선을 끌었다. 이때쯤이면...하고 기다리던 터라 반가운 마음으로 신청하고 장소가 충북 음성(선돌 메주 체험장)이라고 이리쿵 저리쿵 사사로운 말들이 있었으나, 아무튼 야외에 나간다는 그 기분에 내마음은 설레었다. 기다리던 30일! 이른 새벽부터 깨어 창을 열고 날씨를 확인하고, 서둘러 병원에 오니 벌써 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임 선생님과 원 선생님이 웃으며 반겨주시고 여러 동지들도 반가워 인사하며 1호 차에 올랐다. 몇몇 분들은 못 오시고 임 선생님은 연락하느라 바쁘시다. 어제도 문자까지 주시고 상냥하게 챙겨주신 팀장님이 정말 감사하고 정다웠다. 새로 오신 분들도 챙겨 보고 푸짐한 간식과 일정을 듣는 사이 차는 시내를 빠져 나와 어린 시절 소풍 가던 설렘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저물어가는 가을을 감상하노라니 유난히도 파란 하늘 아래 길가와 들panse 산자락에는 빨강, 주홍, 오갈, 초록의 자연이 만든 천연 그림들이 너무도 예뻐서 와~~예쁘다고 절로 감탄이 나온다. 참! 좋다. 눈, 입, 코, 귀, 몸, 마음이 절로 흥겹다. 병실에서, 공급실에서, 수술장에서, 안내, 음료 등등 정성스럽게 봉사하던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넘 좋다. 어느덧 선돌농장에 도착하여 낙엽을 밟으며 소리를 듣는다. 하우스 안에 입실하여 체험장님의 설명을 듣는다. 공해 없는 먹거리를 장려하려고 온 가족을 이끌고 이곳에서 광대한 꿈을 키워 가시는 여사님이 존경스럽다. 생활에 필요한 정보도 주시고, 조별로 나누어 고추장 버무린 체험도 했다. 빨간 고추장이 금새 탄생^^, 푸짐한 무공해 점심을 먹고 커피까지 마시고 필요한 식품들을 사시는 분들도 계시다. 단체 사진 촬영도 하고 주시는 고추장, 갯잎통을 받고 나니 감사하는 마음 가득하다. 주변의 은색 역새들의 사각사각 속삭임이 들린다. 아쉬운 풍경을 뒤로하고 재래시

장에 들러 흥을 돋우는 각설이 타령도 보고, 버섯도 사고 각종 채소들 구경하는 동안 갈 길이 바빠져 서둘러 출발하여 한독의약박물관을 들렀다. 한독의약박물관에서는 2개 조로 나누어 약품 관리하는 곳, 유통하는 곳 등 모두 청결과 위생관리가 매우 엄격함을 보고 놀랐다. 안내자의 설명을 들으며 자동 로봇이 무거운 짐을 지정된 선을 따라 움직이며 운반하는 모습이 신기했다. 1964년 회사창립 10주년 기념으로 문을 열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기업박물관이자 전문박물관이라고 한다. 만 여점의 의약품 관련 유물을 소장하고 세계 각국의 의약품 유물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다. 특히 조선시대에 만든 백자 주전자는 자물쇠가 채워져있어 과용과 특정한 외 사용을 엄금하는 이유라 하는데 참 신기했다. 처음 보는 모든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생명갤러리에는 '몸을 주재하는 몸(생명과 삶의 본재선)'이라는 건강과 삶을 예술작품으로 전시되고 있었다. 우리가 모르고 보지 못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 시간 관계로 많은 것을 보지 못함이 아쉬웠다. 그곳의 소나무들은 싱싱하고 청명했다. 우리는 항상 보고 듣고 배우며 산다. 오늘도 많은 배움이 있었다. 한정된 시간이라 많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귀갓길에 올랐다. 오늘은 10월 30일...10월에 잊지 않고 꼭 불러보는 '잊혀진 계절'을 흥얼거리며 우리들에게 이렇게 바람 쐬는 기회를 주신 인하대병원 관리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 임 선생님과 원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했고, 무사히 하루를 이끌어 주신 두 기사님께도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함께한 우리 봉사자 형님들! 아우님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정성스런 마음으로 봉사합니다."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Fentanyl) 구강 점막 흡수제제 사용법 및 주의사항

Q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최근 Fentanyl 구강 점막 흡수제제를 처방받았는데 특징과 사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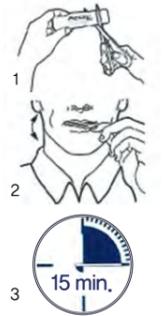
A Fentanyl 제제는 진정, 통증 완화, 수술 전처치 등의 용법으로 사용됩니다. 그 중 구강 점막 흡수제제는 작용 시간이 빠르고, 지속시간이 짧아 최근 돌발성 암성 통증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원내 처방 가능한 Fentanyl 구강 점막 흡수제제

상품명	액틱 구강 정				애프트랄 설하 정		
	200	400	600	800	100	200	300
합량(μg)							
성상							

액틱 구강 정 사용방법

- ① 돌발성 통증 발생 시, 안전 포장된 용기를 가위로 자르고 구강 정을 꺼냅니다.
 - ② 빵과 잇몸 사이에 약효를 나타내는 부분을 위치시키고 플라스틱 손잡이를 이용하여 가끔씩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약물을 이동시키십시오. 구강 점막을 통한 흡수가 장에 의한 흡수보다 빠르므로 이 약은 구강 점막에 잘 접촉시켜 주어야 하며 씹거나 깨물어서 복용하지 않습니다.
 - ③ 15분간 완전히 녹여 복용합니다. 입안에 고이는 침은 삼킵니다.
- * 사용 중 어지러움, 구토 발생 시 즉시 입안에서 액틱 구강 정을 제거합니다.
* 이 약은 하루 4번까지 투여가 가능합니다.



애프트랄 설하 정 사용방법

- ① 돌발성 통증 발생 시 이 약을 복용합니다.
 - ② 이 약을 혀 밑에 적용합니다. 씹거나, 빨거나, 삼키지 않아야 합니다.
 - ③ 정제가 완전히 녹을 때까지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지 않아야 합니다. 입이 마른 환자의 경우 정제 투여 전 물로 구강을 적십니다.
- * 이 약은 1분 이내에 혀 밑에서 녹고, 10분 이내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 이 약 복용 15~30분 이내에 통증이 사라지지 않으면 진통제의 용량에 대해 주치의와 상의하십시오.
* 이 약은 하루 4번까지 투여가 가능하며, 돌발성 통증이 다시 발생하더라도 2시간이 지난 후에 투여할 수 있습니다.



Ref. Kimsonline, 현대약품 액틱 구강 정 안내문, 한국 메나리니 애프트랄 설하 정 안내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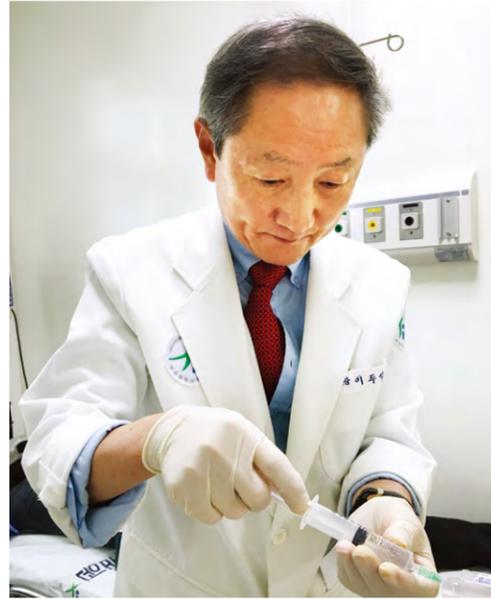
♣ 항상 환자분들 곁에 인하대병원 약사들이 함께합니다.

♣ 약에 대한 문의는 : 주간 032) 890-3323, 3327 | 야간 032) 890-3315

최북단의 섬, 공공의료 책임 다하다! 주민 위한 의료예산 ‘따뜻한 책임’이어야 한다

북한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서해 최북단의 섬 백령도. 더 없이 매혹적인 절경을 뒤흔 채 북한과 중국 어선이 기막히게 교차하는 묘한 긴장과 불안감이 느껴진다. 인천항에서 쾌속선으로 4시간은 가야하는 그곳에 서해 5도 지역 주민의 건강을 오롯이 지키는 인천광역시의료원 백령병원이 있다.

에디터_ 이정희



백령병원 이두익 병원장

돌아온 현역, 이 병원장의 시선은 백령 주민의 고통을 덜고 그는 행복에 젖는다.

마취통증의학과와 치과 진료 시작과 함께 새롭게 개원하다

지금의 백령병원은 지하 1층, 지상 2층에 30병상 규모로 응급실, 물리치료실, 약국 등을 갖추고 지난해 2월 새롭게 개원했다. 산부인과와 정형외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그리고 최신 진료장비와 검사 장비를 갖춘 백령병원은 장례식장의 신설, 마취통증의학과와 치과 진료가 추가되면서 지역적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 범위가 확대된 셈이다. 또 백령병원의 응급센터 설치도 중요한 변화이고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종합건강검진센터와 물리치료실도 갖추었다.

MDCT도입, 인हा대병원과 원격협진으로 골든타임 지키다

리모델링 개원과 함께 인हा대병원 의료원장을 지내고 정년퇴임한 이두익 병원장이 취임했다. 이두익 병원장을 만나기 위해 백령병원을 찾은 날은 MDCT개소식이 있었다. CT도입 전에는 응급환자가 내원하면 인근 해병대 군의무대로 이송 후 CT촬영을 하고 CD로 복사하여 백령 병원에 등록 후 진료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또 병원 내 전문의가 없어 심뇌혈관응급 환자의 경우는 인हा대병원과 원격협진으로 진단과 긴급조치 또는 헬기로 환자를 이송하는 등 여러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원래 200병상 이상이어야 CT장비 허가가 납니다. 백령도라는 지역적 특징 등을 감안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도내 군부대와 지역주민 등이 협조가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우리 병원 내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CT촬영 후 인हा대병원으로 의뢰하여 원격 협진을 통한 영상 판독과 전문의의 신속한 진단으로 환자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죠.” 이두익 병원장은 실제로 최근 인हा대병원과 원격협진으로 환자를 이송하여 완치된 사례가 여러 번 있다고 전한다.

돌아온 현역, 행복한 노장 이두익 병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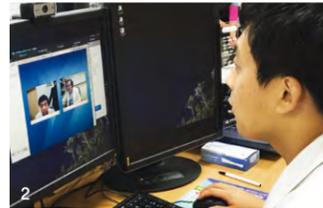
“나의 전공과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진료할 수 있음이 행복한 일이지요. 백령도 주민들에게 딱 필요한 치료



리모델링과 함께 치과 진료를 시작하였다. 쾌적한 물리치료실도 눈에 들어온다.

백령병원에 도입된 MDCT 장비

- 1·2 인हा대병원과의 원격협진시스템으로 백령도의 골든타임을 함께 지켜낸다.
- 3 MDCT개소식에 참석한 인हा대병원 진료협력팀 정홍채 팀장과 이두익 병원장.



라는 사실이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마취통증의학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환자에게 의술은 나누면 통증이 없어지니 함께 행복한 겁니다.” 이두익 병원장이 백령도와 첫 인연을 맺은 것은 42년 전의 일이다. 의사 면허 취득하고 공군군의로 3년간 머물렀던 이곳은 늘 그의 가슴에 가고 싶은 추억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인हा대병원에서 의료원장을 지내는 동안 사실 행정 업무가 더 많았던 그다. 그래서인지 지금 환자를 보는 시간은 어느 순간 보다 소중하다고 여러 번 전한다. “아쉬운 점은 규모와 장비는 아주 좋아졌는데 주민의 건강을 오랫동안 챙길 수 있는 의사가 있어야 해요. 또 이곳은 경영적 측면에서 수익이 발생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백령병원의 존재 의미는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병원 관사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아내의 적극적인 내조는 이두익 병원장의 마지막 의사생활에 열정을 더한다.

개소식에 참석한 인천광역시의료원 조승연 병원장. 직책상 임명을 하는 형식이었지만 참 좋아하는 ‘선배님’이라고 말한다.

백령병원 CT개소식에 참석한 인천광역시의료원 조승연 의료원장과 이두익 병원장은 예상이 삭감될지 모른다는 소식에 걱정이 많다. 어쩌면 경영성과 없는 백령병원은 아주 당연한 일 아닐까? 환자가 없어야 웃을 수 있고 그래도 꼭 존재해야 하는 것이 ‘공공의료의 몫’임을 우리는 메르스 사태를 통해 잘 알았으니 말이다. 그리고 또 하나, 북한의 도발로 언제 비상대피령이 내릴지 모르는 섬 백령도, 그곳에 살며 최전방을 지키는 주민과 군인은 ‘우리의 소중한 가족’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당연한 바람도 전해본다. 해피엔딩이 결말인 꿈속 흰 새가 알려준 연인의 섬이라는 백령도, 그리고 부족한 의료공간을 한마음으로 지켜내는 백령병원 직원 모두가 꼭 해피 했으면 좋겠다.



인천 사회에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임' 라는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다 인하대병원, '2015년도 제1회 올해의 인천인' 기관부문 대상 수상



2015년 12월 4일(금), 인하대병원은 '제1회 2015년도 올해의 인천인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 처음 시행된 '인천인 대상'은 인천시가 인천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시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 또는 기관을 추천 받아 평가 선정하는 상으로 인하대병원 중증호흡기중추군(메르스) 진료팀이 올해 상반기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중증호흡기중추군의 확산을 방지하고 인천을 청정도시로 사수하는 데 기여한 공적으로 기관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인하대병원은 올해 발생한 메르스 사태 동안 국민안심병원을 운영하며 인천시와 인천의료원과 함께 공조하여 메르스 발생을 제로로 막는 데 기여하였고 인천시가 앞으로

의 중증 감염병 발생에 대한 철저한 방역 체계를 수립하는데 대학병원으로서 역할을 다했다. 특히 타 지역에서 거부하는 감염환자를 받아 응급실실에서 완치하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미담 사례로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인천 사회에 '의료기관의 사회적 책무성'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제시했다는 평을 받았다.

김영모 병원장은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 해온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영광스런 상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역사회 의료 가치를 바꾸고 이익보다는 사회적 책무를 더 중시하는 의료인들이 인정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간호사의 날 1004데이 이벤트 성료



2015년 10월 2일, 인하대병원은 간호사의 날인 '1004-Day'를 기념하여 건강상담 및 다채로운 이벤트를 실시했다. 본 행사는 병원간호사회 주관, 인하대병원 간호부 주최로 매년 실시하는 의료봉사 이벤트로서, 환자 및 보호자와 내원객들에게 인하대병원 간호천사들이 먼저 다가갈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행사이다.

건강상담, 어린 환자 대상 풍선 선물, 건강한 100세를 위한 퀴즈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됐다.

고통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성,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교육 성료

2015년 10월 7일~8일, 인하대병원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 개소 기념으로 일반인 및 본원 완화의료 병동에서 자원봉사를 원하는 50여 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일반인을 위한 호스피스 완



화의료'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참가자들은 암과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이해, 호스피스에서의 영적 돌봄 등의 강의를 통해 환자 고통 경감의 다양한 방법에 대해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하대병원은 지난 10월 1일,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상 신설을 완료, 말기암환자의 고통 예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인하대병원 국가지정 인천금연지원센터,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실시



인하대병원 국가지정 인천금연지원센터는 2015

년 10월 19일~23일까지 5일간, 제2차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행사를 마쳤다.

캠프에 참가한 흡연자들은 인하대병원 병동에서 숙식하며 심리상담 및 금연 관련 강의, 운동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금연치료 관련 프로그램을 소화하며 금연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2015년도 내과 개원의 연수강좌 성료



2015년 10월 24일(토), 인하대병원은 지역사회 내과 개원의 100여 명을 초청하여 '2015년도 개원의 연수강좌'를 실시했다.

지역사회 개원의들이 진료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내분비내과 김소현 교수의 '당뇨병 최신약제의 임상적용'을 주제로 한 강연을 시작으로 소화기내과, 감염내과, 정신과 등 다양한 내과분야를 총망라한 주제구성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했다.

새로운 생명을 선물하는 희망의 발걸음 인하대병원, 통합장기이식센터 개소



2015년 11월 16일(월), 인하대병원은 간, 신장, 각막, 골수이식을 아우르는 통합장기이식센터를 개소해 본격적인 진료에 들어갔다.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 따르면 장기이식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환자의 수는 최근 3년간 평균 2만 여 명에 달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뇌사기증자를 비롯한 기증예정자의 수, 장기이식 수술로 대표되는 고 위험, 고 난이도의 수술을 진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수요가 주목받고 있다.

인하대병원 장기이식센터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고자, 신장이식팀, 안구이식팀, 조혈모세포이식팀 등 6개 이식팀과 각 이식팀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지원팀이 연계

된 통합적 장기이식 시스템을 구축했다. 더불어, 장기이식센터에는 장기이식 위원회와 뇌사판정 위원회를 두어 뇌사 기증자와 장기이식대기 환자 간의 효율적인 연결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김영모 병원장은 "인하대병원은 인천을 대표하는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새로운 생명의 불꽃을 되살리는 장기이식 수술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통합장기이식센터를 개소하게 되었다."며 "생체이식 뿐만 아니라, 뇌사자 장기이식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개별 이식클리닉을 통합하여 생명을 살리는 지름길을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보건센터, 인천시민을 위한

알레르기 질환 공개강좌 성료



인하대병원 환경보건센터(센터장 임대현,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센터장 이수영)와 공동으로 지난 10월 6일(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에서 "우리 아이 알레르기 예방하기"라는 주제로 알레르기 질환 공개강좌를 실시했다.

이날 강좌에는 시민 100여 명이 참석, 아토피피부염과 식품 알레르기의 올바른 치료 및 진단 방법, 예방 방안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졌다.

인하대병원, '의료인을 위한 일요일 검진' 실시

2015년 10월 18일, 인하대병원은 인천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지역 의료인을 대상으로 '의료인을 위한 일요일 검진'을 성황리에 실시했다. 올해 검진은 지역 개인 병·의원·약국을 운영



하고 있는 의사, 한의사 및 약사와 이들의 배우자 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평일에 받기 어려운 수면내시경, PET-CT, MRI 등과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호흡기 질환, 유방암, 갑상선암 검사 등 종합적인 검진 서비스를 제공했다.

인천지역의 '해외 감염병 차단 및 예방'

인하대병원, 국립인천검역소와 업무협약 체결



2015년 11월 3일(화), 인하대병원은 국립인천검역소와 '인천지역 해외유입 감염병 차단 및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 기관은 해외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 감염병 환자 혹은 의심환자에 대한 이송·관리 체계 구축, 관련 의료정보 교류 등 인천시민의 건강보호와 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다각적인 협력 활동을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인하대병원, 급성기뇌졸중 적정성평가 6회 연속 1등급 획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최근 발표한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5년부터 뇌졸중 환자의 조기치료와 진단, 2차 예방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인하대병원은 6회 연속 1등급을 획득하였다.

인하대병원, 급성중이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 1등급 획득

인하대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최근 발표한 '급성중이염 항생제'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인하대병원은 급성중이염 항생제 처방률 등의 지표에서 낮은 처방률을 보여 항생제 투여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로 2014년에 이어 2년 연속 1등급을 획득하였다.

비뇨기과 서준규 교수 연구팀, 대한비뇨기과학회 주요 학술상 수상



지난 11월 18일, 인하대병원 서준규 교수(비뇨기과 및 성의학특성화센터)는 2015년도 제 67차 대한비뇨기과학회에서 수여하는 '김세철학술인상'을, 같은 연구팀의 류지간 교수(비뇨기과)는 '대한비뇨기과학회 학술상 국외 논문 기초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한편, 서준규, 류지간, 윤국남 교수 연구팀은 보건복지부 병원특성화 연구센터 사업을 통해 미래 성기능장애 치료제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SK 와이번스, 환아들에게 사랑과 감동 선사



2015년 12월 4일, 인하대병원은 박정권 선수 등 SK 와이번스 스타급 선수들을 초청하여 팬사인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인회는 박정권, 박정배, 정익운, 신재웅 선수 등이 초청되어 진행되었다. 병원 1층 로비에서 사인회 개최 후, 8층 소아병동을 찾아 50여 명의 환아에게 사인물을 건네며 쾌유의 희망을 선물했다.

또한, '행복드림 홈런' 캠페인을 통해 적립된 2,100만 원의 성금을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CS팀 유미애 파트장, 제6회 Korea Healthcare Congress에서 파란자켓 서비스 발표



진료기획팀, 포괄수거제 표준진료지침 우수사례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진료협력팀 이복영 과장,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표창장 수상



연론에 비친 인하대병원 명칭의

World Best Safety

Global INHA



2015. 10. 5
출연: 소화기내과 방병욱 교수
프로그램: KBS 위기탈출 넘버원
내용: 식탐



2015. 10. 11
출연: 예방관리센터 황승식 교수
프로그램: KBS 취재파일 K
내용: 우리는 무엇을 배웠다? 메르스 징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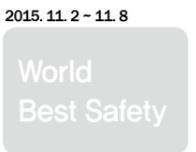
2015. 10. 21
출연: 안과 진희승 교수
프로그램: MBC 생방송 오늘 아침
내용: 망막박리



2015. 10. 21
출연: 직업환경의학과 임중환 교수
프로그램: SBS 뉴스데스크
내용: 미세먼지



2015. 10. 22
출연: 내분비내과 홍성빈 교수
프로그램: SBS 수호천사
내용: 사랑의 달란트를 나눕시다



2015. 11. 2 - 11. 8
출연: 정신건강의학과 김지현 교수
프로그램: SBS 라디오
내용: 7가지 정신질환 관련 의학상식



2015. 11. 4
출연: 재활의학과 김명옥 교수
프로그램: KBS 생로병사의 비밀
내용: 가을철 등산 주의사항



2015. 11. 4
출연: 응급의학과 정현민 교수
프로그램: KBS 생로병사의 비밀
내용: 가을철 등산 주의사항



2015. 11. 10
출연: 직업환경의학과 임중환 교수
프로그램: KBS 아침뉴스타임
내용: 미세먼지 생활 속 대처 방법



2015. 11. 10
출연: 직업환경의학과 임중환 교수
프로그램: TBS 교통방송
내용: 높아진 미세먼지 농도



2015. 11. 11
출연: 산부인과 이지연 교수
프로그램: KBS 생로병사의 비밀
내용: 임신성 당뇨



2015. 11. 11
출연: 신경외과 심유식 교수
프로그램: OBS 뉴스
내용: 수능 등 긴장 상태가 혈관에 미치는 영향



2015. 11. 12
출연: 직업환경의학과 임중환 교수
프로그램: KBS 재난방송센터
내용: 초미세먼지

Info desk

건강교실 안내

건강교실명	내용	개최일시	개최장소	문의전화
유방암 환자 교육	●유방암 환자의 식이 ●유방암 수술 후 관리 및 림프부종 관리 ●유방암 환우들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지원 ●유방전문의와의 상담 및 환우들과의 대화 - 유방암 환우 및 가족(유선신청)	12월 10일(목), 2016년 1월 13일(수), 2월 11일(목) 오후 2시 ~ 4시 30분	3층 예방센터 회의실	유방·갑상선외과센터 (032)890-2560~1
대장암 환자 교육	●대장암의 이해 ●대장암 환자의 영양 - 교육을 원하는 경우 사전 신청 바랍니다.	홀수달 넷째 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3층 2세미나실	암 진료 상담실 (032)890-3600,3638
암 환자 음악 요법	●암 환자를 위한 음악요법(우쿨렐레 배우기) - 희망하시는 분은 암 진료 상담실로 문의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층 1세미나실	

교육 안내

강좌명	제목	일정	문의전화	비고
의료인과 일반인을 위한 심폐소생술 교육	- 의료인 신규과정 - 의료인 갱신과정 - 일반인 과정	홈페이지 참조	032-890-2130,2142	등록비는 홈페이지 참조

전시회 및 공연 안내

전시일정	제목	참여단체/작가	장소	문의전화
2015. 12. 04 ~ 12. 24	이글스전	김기범 외 6인	2층 갤러리	032-890-2603(홍보팀)
2015. 12. 04 ~ 2015. 12. 24	제10회 시연사모전	김경선 외 6인전		
2015. 12. 11(금) 오후 2시~3시	토요타 자선음악회	남성4중창단 Y~voice, 여성보컬 김수정	1층 로비	
2015. 12. 22(화) 오후 3시~4시	아르코 의료기관 순회공연(3차)	예쁜 어린이들		

●상기 일정은 참여단체 또는 병원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파랑새 소식_ 교육일정은 건강교실 안내 참조

■ 지난 행사

10월 15일 수목원 힐링 여행



10월 18일 대국민 핑크리본 건강공개강좌개최
핑크빛으로 물드는 10월을 맞이하여 유방암 인식 개를 위한 건강공개강좌를 개최하였다.



와 재발 가능성을 걱정하는 마음, 또 외모상의 변화도 생겨 마음의 병을 갖고 사는 환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유방암 성형수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11월 17일 파랑새 불우환우돕기 바자회



파랑새 환우들과 직원들에게 물품을 기증받아 바자회를 열었다. 치료비가 없어 수술, 항암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작지만 정성을 모아 희망을 주기위해 파랑새 임원진들이 물품을 기증받아 판매하였다.

음으로 바자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

■ 다음 행사

12월 10일 송년회 청학동 나우베베 6시
2월 파랑새 총회(예정)
날짜, 장소 추후공지

파랑새는 인하대병원 유방암 환우회의 이름입니다.

- 문의 여성암센터 ☎ 032-890-2560
- 홈페이지 www.inha.com → 유방·갑상선외과센터
- 카페 cafe.daum.net / inhabluebird

인하대병원 진료안내

2015. 12. 1 현재

- 대표전화 1600-8114(전국)
- 외래진료예약 (032)890-2000
- 가정간호사업실 (032)890-3590
- 종합검진센터 (032)890-3331
- 종합검진플러스센터 (032)890-3300
- 암진료상담실 (032)890-3600

전체 진료과 토요일 오전 진료합니다. 각 진료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과의 사정에 따라 진료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색** : 클리닉과 일반진료 병행
- **청색** : 클리닉만 진료

진료과	교수명	선택 진료	세부전공분야	진료요일		비고	진료과	교수명	선택 진료	세부전공분야	진료요일		비고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심혈관 센터 내과 (☎2200 2440)	심장 내과	박금수	관동맥질환, 고혈압, 심낭질환, 심혈관중재술	월, 화	월, 목		혈액종양내과 (☎2216, 2219)	김철수	* 혈액암 및 희귀암(백혈병, 림프종, 골수종, 육종 외 각종 난치성 희귀암) 고식적인 약물치료, 표적치료, 조혈세포이식	월, 수	월, 수		
		권 준	* 심부전(허혈성 또는 비허혈성 심근증, 판막 질환), 심장 초음파, 관상동맥 질환	수, 금	월, 수			이문희	* 암 진단, 항암 치료(유방암, 위암, 대장암, 여성암(자궁암, 난소암), 희귀암)	수, 목	월, 목		
		김대혁	* 부정맥, 실신, 심박동기, 관동맥질환	월, 수, 목	수			이현규	* 혈액학 중앙해립소, 백혈병, 조혈세포이식, 혈액질환, 폐암	(월, 수), 화, 목	수	■ 폐암센터	
		우성일	* 심근경색, 협심증, 심혈관 중재시술	화, 금	월, 화			임주환	* 항암 화학요법, 중앙내과(소아)기암위암, 대장암, 두경부암, 육종, 유방암, 기타 고형암의 항암화학요법, 완화의료	화, 금	화, 목	친자확인(HO)	
		신성희	심장 질환, 심부전(허혈성 또는 비허혈성 심근증), 판막질환, 협심증, 심장 초음파	화, 목	목, 금			박영훈	혈액암, 고형암, 조혈세포이식(빈혈, 혈액질환, 백혈병, 림프종, 다발골수종, 고형암, 항암치료, 골수이식)	월, 금	화, 금		
	박상돈	관동맥질환, 말초혈관질환, 대동맥질환, 고혈압	월, 수	수, 금		감염내과 (☎2216, 2219)		이진수	* 감염성질환, 병원감염, 발열질환	화, 목	월		
	권성우	허혈성 심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관상동맥질환 및 말초동맥질환 중재시술	목, 금	화, 목				백지현	* 감염성질환, 병원감염, 발열질환	월, 금	수		
	이만중	관동맥질환, 고혈압, 심부전	화, 목					권혜운	감염성질환, 병원감염, 발열질환	화, 금	화, 금		
	이명동	관동맥질환, 고혈압, 심부전	화, 목					류마티스내과 (☎2210~1)	박 원	관절염, 골다공증, 루푸스	화, 수		
	백원기	심장질환, 혈관질환, 대동맥질환	화						권상렬	* 관절염, 혈관염, 베체트, 레이노	월, 목, 금	화, 목	
김정택	심상인상장 혈관외과, 일반흉부질환	수	월, 목		임미진	* 관절질환, 자기면역질환(관절염, 통풍, 혈관염)	월, 목, 금		월, 수				
이미나	심혈관질환	월, 목			조경화	관절염, 자기면역질환(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통풍, 전신성 경화증)	월, 화, 수		화, 금				
신용운	* 위암, 대장암, 위· 대장질환	월, 목	목	내시경센터 (☎2540~1)	조민재	류마티스관절염	목						
소화기내과 (☎2224)	김형길	김형길	* 소화관위암, 대장암, 염증성 장질환	수, 금	월		알레르기내과 (☎2216)	김철우	천식, 만성기침, 두드러기 및 알레르기 질환	월, 목	화, 목		
		이돈행	담도, 췌장질환, 위· 대장내시경	화				일 반	수				
		권계숙	위암, 대장암, 염증성 장질환, 역류성 식도질환, 변비	수, 금	화			임상약리학(☎1124)	김철우	임상약리/약동분석	수, 금		정적법실 1층
		이진우	* 간암, 간경변증, 간염, 간이식, 지방간 클리닉	화, 수, 목(☎)	목	◆간암클리닉 : 간암환자만			김소현	임상약리학(초기임상시험)	목		임상시험센터내
		정 석	* 췌장· 담도 질환, 췌장암, 담도암, 담낭암, 담석질환, 췌장염	월, 금	화				김철웅	* 난치성 정신분열병, 외상성뇌장애, 불면증, 조기정신병	월, 목	화, 수	지우병원(가정병원)내과
	방병욱	위암, 대장암, 염증성 장질환	월, 화	금		이정성	* ADHD, 틱장애, 학습· 주의력· 언어		월, 화	화, 목	현암병원(가정병원)내과		
	진영주	* 간암, 만성C형 간염, 만성 C형 간염, 알코올성 간질환, 지방간	월	화, 수, 금		배재남	* 노년기 우울증, 기억장애, 치매, 노년기 정신장애		화, 수, 목(▲)	월, 목(▲)	▲치매초기검진클리닉		
	박진석	소화관, 간, 담도, 췌장질환	목	월, 수		김지현	우울장애, 불안 및 스트레스장애, 정신신체의학	수, 금	월, 목				
	호흡기내과 (☎2219)	곽승민	이홍렬	*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종양	화, 목, (금, 수)	월, 금	■폐암센터	소아청소년과 (☎2260)	홍영진	심장, 감염	목	월, 수	
			류정선	* 폐암, 폐결절, 항암화학치료, 맞춤치료, 흉터질환	월, 화, (수, 금), 수, 목(1,3주)	() : 주별진료 (초진만)	김준호		* 혈액종양, 내분비, 비만, 성장	수, 금	월, 화		
조재화			*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진균진료의학	수, 목	월, 화		임대현		* 신생아, 미숙아, 발달	월	화, 수, 목	만6세까지 소아과진료	
남해성			해외연수(2015. 9. 1 ~ 2016. 8. 31)				김정희		* 소아 알레르기, 호흡기·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월, 수, 목	금	★비만센터진료 14:00~16:00	
김정수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폐종양	(금, 수)	화, 금		권영세		* 소아신경(뇌전증(간질), 두통, 신경)	월, 화, 금	목		
폐암 센터 내과 (☎3830)	류정선	이홍렬	* 폐종양	금			노년경 신경과 센터 (☎2370 2375)	하준건	파킨슨병을 비롯한 운동장애(파킨슨병, 전전, 과운동증 및 운동실조, 퇴행성 질환)	화, 수	수(▲), 목	△운동장애클리닉	
		남해성	해외연수(2015. 9. 1 ~ 2016. 8. 31)					나정호	* 뇌졸중, 뇌혈관질환, 뇌경색, 두통	목(■)		■두통클리닉	
		김정수	폐종양, 폐결절, 폐암조기검진	금				최성혜	* 기억장애, 치매, 두통, 어지러움증	월, 수(◆), 금		◆기억, 언어장애클리닉	
		김정수	폐종양, 폐결절, 폐암조기검진	금				박희권	* 뇌졸중, 말초신경, 두통, 어지러움증	화			
		김영삼	* 폐종양	화, 목	수, 금			배은기	뇌전증(간질), 수면장애, 두통, 어지러움증 (문헌상 5.26 ~ 8.24)	목, 금	월, 목(★)	★수면클리닉	
당뇨내분비센터 (☎3360, 2215)	홍성빈	김용성	당뇨병, 비만, 내분비	월, 화	월, 목		신경 외과	윤병남	* 말초신경, 다발성경화증, 신경근(육)질환, 척수질환, 수술통감시, 두통, 어지러움증, 신경통증	수, 목	화, 목(★)	▲신경근(육)질환클리닉	
		김성현	* 갑상선, 골다공증, 부갑상선질환, 내분비희귀질환	목, 금	월, 수			윤혜원	뇌졸중, 치매	월			
		김성현	* 당뇨병, 내분비, 비만, 갑상선	월, 수, 금	화			김은영	* 뇌신경외과, 뇌종양, 안면경련, 3차신경통, 소아 뇌종양류, 경동맥질환증, 모야모야병, 뇌혈관기형, 사이베나이프	월, 금	수		
		김성현	* 당뇨병, 내분비, 비만, 갑상선	월, 수, 금	화			박현선	* 뇌혈관질환, 신경중재술, 두부외상	수	월, 화		
		김성현	* 당뇨병, 내분비, 비만, 갑상선	월, 수, 금	화			오세양	뇌혈관내 수술,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뇌졸중	화			
비만 센터 (☎3360, 2215)	이연지	허윤석	* 비만· 당뇨· 위수술(고도비만수술)	화			뇌혈관 신경과 센터 (☎3860 3865)	나정호	* 뇌혈관질환, 뇌졸중	화, 목	월		
		이연지	* 소아비만상담, 종합검사, 식이요법, 운동요법	금*		*소아과 외래에서 오후진료 : 14:00~16:00		최성혜	* 기억장애, 치매, 두통, 어지러움증	수			
		이연지	* 인지행동요법, 체중감량 후 재취종진	목				박희권	* 뇌졸중, 말초신경, 두통, 어지러움증	월, 금	목(●)	●뇌졸중클리닉	
		이연지	일반외과	목				윤혜원	뇌졸중, 치매	수, 화, 금			
		이연지	일반외과	목				박현선	뇌동맥류, 경동맥질환증, 모야모야병, 뇌혈관기형	월, 화, 목			
신장내과 (☎2229)	황선덕	김문재	* 신장질환, 고혈압, 투석치료, 신장이식	화, 목	월		신경 외과	현동근	* 뇌혈관질환(뇌졸중, 뇌동맥류, 뇌출혈), 혈관내 중재시술(고압 색전술), 경동맥 스텐트삽입술, 두부외상	수	월, 수		
		이승우	*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투석치료	월	화, 수, 금			심유식	* 뇌혈관질환, 신경중재술, 두부외상	금			
		송준호	* 신장질환, 당뇨병성신증, 만성신장병, 심부전증, 투석치료	월, 수, 금	목			오세양	뇌혈관내 수술,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뇌졸중	화, 목			
		황선덕	당뇨병성신증, 만성신장병, 급만성 신부전증, 신우신염, 신장이식, 투석치료	목	월			정한영	* 뇌졸중(중풍), 소아발달장애, 장애평가, 뇌성마비	월, 금	수, 목(▲), 금(▲)	다발장애클리닉, 장애평가센터	
		일 반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김창환	근골격계통증(요통, 오십견, 말초신경병변)	화, 수, 금(▲)	수(▲), 목	△요통클리닉, 근골격계통증클리닉	
신장이식 센터 (KTC) 외과	박근영	김문재	* 신장이식	수			재활의학과 (☎2480~1)	정한영	* 뇌졸중(중풍), 소아발달장애, 장애평가, 뇌성마비	월, 금	수, 목(▲), 금(▲)	다발장애클리닉, 장애평가센터	
		황선덕	신장이식	수				김창환	근골격계통증(요통, 오십견, 말초신경병변)	화, 수, 금(▲)	수(▲), 목	△요통클리닉, 근골격계통증클리닉	
		박근영	신장이식	화				김영록	* 척추손상, 언어장애, 발통증, 의지보조기	목, 금(■)	월, 화(■), 목(▲)	어지러움클리닉, ▲척추센터	
		박근영	신장이식	화				최영록	신장질환, 호흡재활, 뇌재활, 인지재활, 어지럼증재활, 두경부, 통증	화(▲), 수(●★), 화(▲), 목(▲), 금(▲)	월(▲), 화(▲), 목(▲), 금(▲)	★신노재활센터	
		박근영	신장이식	화				일 반	일반재활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금(■)	★신노재활센터	
복막투석클리닉 (PDC) (☎2535)	이승우	김문재	* 투석치료(혈액, 복막투석)	수			재활의학과 (☎2480~1)	현동근	* 뇌혈관질환(뇌졸중, 뇌동맥류, 뇌출혈), 혈관내 중재시술(고압 색전술), 경동맥 스텐트삽입술, 두부외상	수	월, 수		
		이승우	* 투석치료(혈액, 복막투석)	목				심유식	* 뇌혈관질환, 신경중재술, 두부외상	금			
		송준호	* 투석치료(혈액, 복막투석)	화				오세양	뇌혈관내 수술,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뇌졸중	화, 목			
		황선덕		수				정한영	* 뇌졸중(중풍), 소아발달장애, 장애평가, 뇌성마비	월, 금	수, 목(▲), 금(▲)	다발장애클리닉, 장애평가센터	
		일 반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김창환	근골격계통증(요통, 오십견, 말초신경병변)	화, 수, 금(▲)	수(▲), 목	△요통클리닉, 근골격계통증클리닉	

진료과	교수명	선택 진료	세부전공분야	진료요일		비고	진료과	교수명	선택 진료	세부전공분야	진료요일		비고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심뇌재활센터 (☎2480)	정한영	*	뇌졸중(중풍), 소아발달장애, 장애평가, 뇌성마비	월, 금	수		성형외과 (☎3870)	황 건	얼굴외상 및 골절, 흉터 성형술	화, 목	화		
	좌경림		심장재활, 호흡재활, 뇌재활, 인지재활, 어지럼증재활, 두경부, 통증	화, 수	월, 금			기세휘	* 미세수술, 수부외과수술, 하지재건술, 손목재건술, 미용수술	월	월, 수		
	일 반		일반재활	화, 목	월			김연수	* 유방재건 및 성형, 미용-미세수술, 피부병이체거치 병중, 피지낭종, 기타피부화, 여성성기성형	수(★), 금(★)	목(★), 금	★유방-김성연외과센터	
가정의학과 (☎2240)	최지호		평생 건강관리, 금연	월, 화, 목	월(★), 수(◆), 금	◆건강센터	산부인과 (☎2270, 2117)	일 반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이연지	*	항노화영양치료, 생활습관교정, 스트레스	월(수, 수, 목(▲), 금	목(▲)	△비만센터(목요일 10시부터)		이병익	* 중앙학, 불임, 폐경기	수, 목, 금	월		
	조세옥		간장검진, 노인약해(노인 만성통증, 노인 약물장리)	화(◆), 목(◆)	화(◆), 목(◆)			송은섭	* 부인과중양	월, 수, 금	수		
외 과 (☎2250)	김경래	김경래	대장항문외과, 응급외(해)문 질환(치핵, 치루, 탈출, 안, 대장 질환(대장암,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월, 수	수		안과 (☎2250)	최수란	* 고위협임신, 정밀초음파	월, 화(□), 목	화, 수	□정밀 초음파	
		신석환	소화기외과, 위암	월, 목	월			이지연	고위협임신, 정밀초음파	수, 금(□)	월, 목, 금		
		홍기천	* 혈관외과(복부 대동맥류, 동맥 박색, 심부정맥 혈전증, 하지 정맥류)	수, 목	월	2층 혈관외과		윤내리	고위협임신, 정밀초음파	화, 목	월, 금		
		안승익	간담췌외과, 이식외과(담석증, 간암, 췌장암, 담도암, 간이식)	화, 목	화			일 반	고위협임신, 정밀초음파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김재영	* 유방외과, 갑상선-내분비외과, 종양외과	월, 화, 목		3층 유방-김성연외과센터		문연성	망막, 유리체, 포도막	월, 화	목		
	이건영	* 유방, 내분비외과	수, 금	월	3층 유방-김성연외과센터	진희호	* 망막, 유리체, 백내장	수, 금	월				
	허윤석	* 위암, 고도비만수술, 소화성궤양, 기질종양	화(★)	화, 목	★비만센터	강성모	* 소아안과, 성형안과, 사시, 약시	월	수, 목				
	유방 갑상선 외과 센터 (☎2500~1)	김연수	최선근	* 소화기외과, 대장암, 췌장암, 직장암, 항문암, 북강경 대장절제술, 치질, 치루, 치열 등 대장항문질환	화, 목	금		안과레이저 (☎2400)	김기래	* 녹내장, 백내장	월, 화, 목, 금	화, 목, 금	
			최윤미	* 갑상선수술, 소아외과	수, 금	월			정지현	백내장, 각막, 안구건조증, 렌즈삽입술	목	월, 금	●렌즈클리닉(매일 둘째주 토요일)
			신우영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월	월, 목			일 반	문연성	망막, 유리체, 포도막	월, 화	목
박근영			혈관이식외과, 신장이식(동정맥류, 하지정맥류, 당뇨초, 하지통증, 하지궤양)	화	화(●), 화, 금	●신장이식클리닉 2층 혈관외과	진희호		* 망막, 유리체, 백내장	수, 금	월		
이주형			일반외과, 대장항문	금	수		김영호		* 무통증편도수술, 소아비인두과, 갑상선두부종양	월, 화, 금			
홍인기	일반외과, 대장항문	수	수		최정석	* 무통증편도수술, 소아비인두과, 갑상선두부종양	월, 화, 금						
흉부외과 (☎2280)	김연수	김원철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정신분열증	목			치과 (☎2470)	김일규	구강악안면외과, 임플란트, 매식	월, 화, 수(■), 금	화, 목	■임플란트클리닉	
		백원기	심장질환, 혈관질환	화	화, 목			오남식	* 보철과, 임플란트보철, 심미보철	화, 목, 금	월(■), 화, 금		
		김정택	* 심장질환관련, 일반흉부질환	월, 금	화(●)	●13:30~15:30 서비스진료		조기영	보존과(근치료, 보철치료, 치아외상, 심아수복, 미세한(경치료)	화, 목, 금	화, 수, 목, 금		
		윤용한	* 폐, 종격동, 식도질환, 기흉, 다한증, 흉곽기형	화, 목	화			최태현	고정관(생인공), 생인공, 수술교정, 턱교정, 설측교정	월, 수, 금	월, 수, 금		
		김영삼	* 폐, 종격동, 식도질환, 기흉, 다한증, 흉곽기형, 흉부외상	수	수, 금			조현영	구강악안면외과	화, 수, 월, 수, 금	화, 수, 월, 수, 금		
김정수	심혈관질환	목	월, 목		흉부외과 (☎2280)	김원철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정신분열증	목					
이미나	심혈관질환	목	월, 목			백원기	심장질환, 혈관질환	화	화, 목				
김정택	* 심장질환관련, 일반흉부질환	월, 금	화(●)	●13:30~15:30 서비스진료		김정택	* 심장질환관련, 일반흉부질환	월, 금	화(●)				
윤용한	* 폐, 종격동, 식도질환, 기흉, 다한증, 흉곽기형	화, 목	화			윤용한	* 폐, 종격동, 식도질환, 기흉, 다한증, 흉곽기형	화, 목	화				
김영삼	* 폐, 종격동, 식도질환, 기흉, 다한증, 흉곽기형, 흉부외상	수	수, 금			김영삼	* 폐, 종격동, 식도질환, 기흉, 다한증, 흉곽기형, 흉부외상	수	수, 금				
혈관 외과 (☎2166)	김정수	김정수	심혈관질환	목	월, 목		영상 의학과 (☎2500~1)	남세진	유방방사선학	월, 화, 금	화, 목(■)	■맘모토미 술	
		홍기천	* 혈관이식외과	수, 목	월	2층 혈관외과		김원철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정신분열증	목			
		김현정	혈관(이)식외과	화	화, 금			백원기	심장질환, 혈관질환	화	화, 목		
		백원기	심장질환, 혈관질환										

암진료상담실 : (032)890-3600

★ : 사이버나이프센터 □ : 유방·갑상선외과센터 ■ : 폐암센터

구분	진료과	교수명	세부전공분야	진료요일		비고	구분	진료과	교수명	세부전공분야	진료요일		비고
				오전	오후						오전	오후	
위암	소화기내과 (소화기센터)	신용운	* 위암, 대장암, 위·대장질환	월, 수, 목		*08:30~09:30	갑상선암	내분비내과	김용성	당뇨병, 비만, 내분비	월, 화	월, 목	암 다학제
		김형길	*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대장질환	수, 금	월				남문석	갑상선, 당뇨병, 뇌하수체	화, 목	화	통합진료:
		관계숙	* 위암, 대장암, 소화기질환, 변비클리닉	수, 금	화				홍성빈	* 갑상선, 내분비, 골다공증, 당뇨병	목, 금	월, 수	화, 수요일 오후
		방병욱	위암, 대장암, 염증성 장질환	월, 화	금				김소현	* 갑상선, 당뇨병, 내분비, 비만	월, 수, 금	화	
		신석환	위암, 소화기외과	월, 목	월				조영업	* 내분비외과(갑상선암), 유방, 부신종양	(월, 화, 목) (화*목)	(수, 금)	(월, 수*목)
	외과	허윤석	* 위, 위암, 소화기외과		화, 목			김세중	* 내분비외과(갑상선암), 유방	(수, 목), (금, 목)	(월, 수*목)		서비스진료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최윤미	* 갑상선수술, 소아외과	수, 금	월		
		이문희	*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박신영	내분비외과, 유방	월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김재열	* 갑상선, 두경부종양, 음성장애	목	화, 목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금		최정석	* 무통증편도수술, 소아비만후과, 갑상선, 두경부종양, 후두 및 음성, 침샘 및 구강질환	월, 화, 금			
대장암	소화기내과 (소화기센터)	신용운	* 대장암, 위암, 위·대장질환	월, 수, 목		*08:30~09:30	유방암	외과	조영업	* 유방, 내분비외과	(월, 화, 목, 금) (화*목)	(월, 목)	*13:30~15:30
		김형길	* 대장암, 위암, 소화기질환·대장질환	수, 금	월				김세중	* 유방, 내분비외과	(수, 목), (금, 목)	(월, 목)	
		관계숙	* 대장암, 위암, 소화기질환, 변비클리닉	화, 금	수				박신영	내분비외과, 유방	월	금	암 다학제
		방병욱	위암, 대장암, 염증성 장질환	월, 화	금				이문희	*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통합진료:
		김경래	대장항문질환, 소화기외과	월, 수	수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화, 수요일 오후
	외과	최선근	* 대장항문질환, 소화기외과	화, 목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이문희	*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박정훈	방사선종양학	금	월, 화, 목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화, 금	화, 목			김연수	* 영장인, 유행병, 미용수술, 미세수술, 피부암, 제자	수, 금	(목, 금)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이병익	* 종양학, 불임, 폐경기	수, 목, 금	월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금		송은섭	부인과종양	월, (수, 목), (금, 수)			
간암	소화기내과 (소화기센터)	이진우	* 간암클리닉, 간염, 간경변	목(▲)		▲간암클리닉	중양내과	외과	황성욱	* 종양학, 복강경	월, 화	화, 목	암 다학제
		진영주	* 간암클리닉, 간염, 간경변	월	화, 수, 금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통합진료:
		안승익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화, 목	화				이문희	*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월 오후
		이건영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금	수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신우영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월	월, 목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중양내과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박정훈	방사선종양학	금	월, 화, 목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화, 금	화, 목			박원희	* 종양, 전립선질환, 요실금	화, 목	화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윤상민	* 종양, 결석, 신이식	월, 화, 금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금		이문희	*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박정훈	방사선종양학	금	월, 화, 목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화, 금	화, 목		
췌·담도 계암	소화기내과 (소화기센터)	이돈행	담도, 췌장질환, 위·대장내시경	화			방사선종양학과	방사선종양학과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정 석	* 담도암, 췌장암, 담석증, 담도확장질환, 위내시경	월, 금	화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안승익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화, 목	화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이건영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금	수				박정훈	방사선종양학	금	월, 화, 목	
		신우영	* 간담도외과, 이식외과	월	월, 목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외과	이문희	*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박정훈	방사선종양학	금	월, 화, 목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화, 금	화, 목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박정훈	방사선종양학	금	월, 화, 목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금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박정훈	방사선종양학	금	월, 화, 목			박정훈	방사선종양학	금	월, 화, 목		
폐암	소화기내과 (소화기센터)	이흥렬	* 폐종양,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화, 목, (금)	월, 금		정신내과	정신건강의학과	김원형	스트레스장애, 수면장애, 우울증, 정신보염증		(목*화)	*13:30~15:30
		곽승민	* 폐종양,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월, 화(수, 목)	수, 목(1, 3주)				김영옥	* 척추손상, 언어장애, 발통증, 의지보조기	목	월	
		류정신	* 폐종양, 호흡기질환, 만성폐질환	월, (월, 목)	(월, 목)				최광석	* 피부 양성종양 및 악성종양, 조갑질환, 탈모	월, 화, 금	목	
		남해성	해의연수(2015. 9. 1 ~ 2016. 8. 31)						신정현	피부 양성종양 및 악성종양, 색소질환, 피부미용	수, 금	월(1, 3, 5주), 화	(): 주별 진료
		김정택	* 폐질환, 심장, 혈관, 정맥류	월, 금	화				변지원	피부 양성종양 및 악성종양, 흉터, 피부미용외과	수, 목	월, 금	
	외과	윤유한	* 폐암, 식도암	화, 목	화			이문희	* 혈액학, 종양학	수, 목	월, 목		
		김영삼	* 폐암, 식도암, 흉선암	(수, 목)	수, (금, 목)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화, 금	화, 목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이현규	* 혈액학, 종양학	(월, 목)	화, 목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박정훈	방사선종양학	금	월, 화, 목		
흉부 관련암	흉부외과	김정택	* 흉선암	월, 금			뇌종양	신경외과	김은영	* 뇌종양, 뇌관, 뇌척수액, 뇌염, 뇌전증, 뇌신경, 뇌사	월(▲), 금	수	▲뇌종양, 인면경련증, 상차신경클리닉
		윤유한	* 폐암, 식도암	화, 목	화				박현선		화(★)	목(★)	
		김영삼	* 폐암, 식도암, 흉선암	(수, 목)	수, (금, 목)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이현규	* 혈액학, 종양학	(월, 목)	화, 목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박정훈	방사선종양학	금	월, 화, 목	
	중양내과	이현규	* 혈액학, 종양학	(월, 목)	화, 목			윤순환	* 척추종양, 사이베니프, 척추, 척수 디스크질환	화, 목	화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금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박정훈	방사선종양학	금	월, 화, 목			박정훈	방사선종양학	금	월, 화, 목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강준수	골종양, 인공관절, 혈관질환, 고관절, 관절염	월, 수	월		
혈액암	혈액내과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연부조직 및 골육종	정형외과	이동주	* 종양, 상처, 수부, 관절염	금	화, 금	
		이현규	* 혈액학, 종양학	화, 목	수				권대규	* 종양, 소아정형, 뇌성마비, 외상	화	월, 목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김철수	* 혈액학, 종양학	월, 수	월, 수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금			임주한	* 종양학, 혈액학	화, 금	화, 목	
		박정훈	방사선종양학	금	월, 화, 목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외과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금		박정훈	방사선종양학	금	월, 화, 목		
		박정훈	방사선종양학	금	월, 화, 목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김우철	* 방사선종양학	(월, 화, 목, 금)	월, (화*)	목		박정훈	방사선종양학	금	월, 화, 목		
		김현정	방사선종양학	월, 수, 목	(월, 수, 목, 금)	금							



인하대병원의 특별한 '내일'을 만드는 가치기부

♣ 인하대병원의 발전을 후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 * 개인 또는 단체 및 법인 명의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 * 후원해주시 금액은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후원해주시 분들께는 병원 이용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후원 현황

일자	후원인	후원액(원)	후원분야	비고
2015.11.30	서준규 교수	12,000,000	지정기부금	

◆ 후원방법

- ① 약정서 작성 : 방문, 온라인,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연락주시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② 납부방법 : 일시금 혹은 분할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 ▶ 온라인입금 : 하나은행 748-910002-39804 (예금주: 인하대병원)
 - ▶ 자동이체(CMS) :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본인의 지정계좌에서 매달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이체되는 서비스입니다(정기출금일: 15일, 25일).

- ▶ 급여공제 : 매월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분할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교직원에 한함).
- ▶ 방문납부 : 인하대병원 지하2층 대외협력팀
- ▶ 문의사항 : 궁금하신 내용은 대외협력팀으로 전화를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TEL : 032)890-3391 FAX : 032)890-3061 e-mail : hc@inhauh.com

인하대병원 대외협력팀



지역사회 건강 지키는 병원 지역을 위한 으뜸의료

인천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_심혈관센터, 뇌혈관센터, 심뇌재활센터, 예방관리센터

뇌신경센터
 척추센터
 통증센터
 혈관센터
 여성전문센터
 _산부인과, 유방·갑상선 외과센터



사회공헌_연탄나르기 봉사



골든타임_인천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전문진료_환자중심 외래 전문질환센터



전문간호_포괄간호서비스 병원



의료사각지대_도서지역 응급의료지원



해외나눔의료_개도국 의료봉사활동

D O I G

I N H A

U N I V E R S I T Y

H O S P I T A L

환자가 가장 안전한 병원 인간을 위한 전문의료

전국 대학병원 유일, 최대규모 포괄간호서비스 병동 운영
 국제의료기관(JCI)평가 2회연속 성공
 보건복지부 의료기관평가 2회연속 성공